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教育學碩士學位論文

近代改革期 함경도 儒·鄕 갈등과 養士 機關의 변환

2020年 8月

서울大學校 大學院

社會教育科 歷史專攻

崔 允

近代改革期 함경도 儒·鄕 갈등과 養士 機關의 변환

指導敎授 金 泰 雄

이 論文을 敎育學碩士 學位論文으로 提出함

2020年 4月

서울大學校 大學院

社會敎育科 歷史專攻

崔 允

崔 允의 敎育學碩士 學位論文을 認准함

2020年 7月

委 員 長 _____ (인)

副委員長 _____ (인)

委 員 _____ (인)

국문초록

본 논문은 조선말 함경도 향촌 사회의 질서 변동을 배경으로 대한제국기 함경도 내 전통 교육 기관이 신식 학교로 변환되는 과정을 밝힌 글이다.

조선 시기 함경도에 대한 정책 방향은, 邊境에 위치해 있는 지리적 특징에 따라 文보다는 武 위주로 설정되었다. 함경도의 士族은 경제력도 크지 않아 儒學에 매진하여 科擧에 급제하기가 어려웠고, 대신 그들은 향촌 職任을 차지하고자 노력하였다. 조선말 기존 鄕任을 다수 차지하고 있던 鄕儒層에 의해 직임 경쟁에서 밀려난 世儒層은, 養士 機關의 설립과 鄕約·鄕禮의 시행을 통해 향촌 사회에서의 영향력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갑오개혁으로 신분제와 과거제가 철폐되면서 함경도 향촌 사회에 새로운 사회 변동 세력이 등장하여 세유와 향유의 기득권이 위협받게 되었다. 이에 儒鄕層은 연대하여 중앙에 上疏하고 舊例의 회복을 청하였다. 이후 중앙으로부터 '鄕憲'이 내려진 일을 기념하여 鄕飮酒禮를 베풀었다. 그러던 가운데 韓日議定書 체결 등 국난에 봉착하면서, 함경도의 유향층을 포함한 주요 인사들은 향음주례를 베풀었던 咸鏡道京約所에서 漢北興學會를 설립하고 교사를 양성하는 등 교육의 진흥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한북흥학회의 교육 지향은 新舊折衷이었다. 한북흥학회 설립 이후 함경도 내 많은 양사 기관은 신구절충에 입각한 교육 기관으로 변환되어갔다. 교육 활동의 주체는 점차 民人 전체로 확대되었고 공공성을 띤 新式 學校의 확산은 가속화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양사 기관으로 대표되는 함경도의 전통적인 교육 기반 위에서, 함경도 민인 일반이 國亡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학문을 적극 수용하려 한 결과였다.

주요어 : 世儒, 鄕儒, 養士 機關, 漢北興學會, 新舊折衷, 新式 學校
학 번 : 2017-27922

次　　例

1. 序言 ····· 1

2. 갑오개혁 전후 함경도 儒·鄕 갈등과 養士 機關의 확산
1) 世儒·鄕儒層의 校任 쟁탈 ····· 4
2) 養士 機關의 확산과 鄕約·鄕禮의 시행 ····· 13

3. 한말 漢北興學會의 설립과 養士 機關의 변환
1) 儒鄕層의 연대와 '關北鄕飮酒禮' 시행 ····· 19
2) 漢北興學會와 新舊折衷 교육론 ····· 28
3) 養士 機關의 변환과 新式 학교 설립 ····· 38

4. 結語 ····· 45

參考文獻 ····· 49
附錄 ····· 55
Abstract ····· 65

1. 序言

조선은 '學校興'을 守令의 주요 임무인 七事 가운데 하나로 배속하는 등 수령의 통치를 통하여 전국 각지의 교육을 일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였다. 각 지역 교육의 실질적인 주체이자 대상은 사대부 계층으로 설정되었다.[1] 사대부 계층은 과거를 통해 관직에 나아감으로써 중앙 정치에 참여하였고, 그러한 정치 권력에 기초하여 향촌 사회에서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특히, 학문을 生業으로 삼는 文士層은, 반드시 관직에 나아가지 않더라도 향촌 사회에서 교화·교육의 주체로서 지도자적 위상을 정립할 수 있었다.

그러나 三南 지역에서와 달리 함경도에서 문사층의 위상은 미약한 편이었다. 함경도는 女眞 등 북방 세력의 침입을 경계해야 하는 변방 지역의 특성상, 전통적으로 武士가 득세하는 경향이 강했기 때문이다. 18세기 후반에 이르러 함경도에도 '文風'이라 불릴 만한 풍조가 유행했지만, 중앙 정부는 여전히 함경도를 武鄕으로 유지·고정하려 하였다.[2] 조선초부터 徙民 정책을 통해 함경도를 비롯한 변경 지역의 안정에 주력한 중앙 정부 입장에서는, 함경도의 문풍을 진작하는 것보다는 변경의 경비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였다.

이처럼 함경도가 전통적으로 武鄕의 위상을 지녔기 때문에 先學들은 주로 중앙 정부의 북방 경영과 관련하여 함경도에 관심을 두었다. 초기 연구들은 대개 조선과 淸의 定界 문제를 다루면서 그 일부로서 함경도를 다루었다.[3] 이러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정계 이후 함경도 지역을 개발·경영하려는

---

1) 李景植, 「우리나라 興學과 氣槪涵育의 推移」, 『서울대학교 사대논총』 67, 2003.
김태웅, 『신식 소학교의 탄생과 학생의 삶』, 서해문집, 2017.
2) 강석화, 『조선후기 함경도와 북방영토의식』, 경세원, 2000, 213~225쪽.
3) 鄭吉子, 「間島의 歸屬問題」, 『綠友硏究論集』 5, 1963.
李漢基, 「韓國의 領土」,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69.
劉鳳榮, 「白頭山定界碑와 間島問題」, 『白山學報』 13, 1972.
趙 珖, 「朝鮮後期의 邊境意識」, 『白山學報』 16, 1974.
金慧子, 「朝鮮後期 北邊越境問題 硏究」, 『莉大史苑』 18·19, 1982.
金炅春, 「朝鮮朝 後期의 國境線에 대한 一考」, 『白山學報』 29, 1984.
朴容玉, 「白頭山 定界碑建立의 再檢討와 間島領有權」, 『白山學報』 30·31, 1985.
梁泰鎭, 『韓國邊境史硏究』, 法經出版社, 1989.

중앙 정부의 적극적 의지와 더불어 함경도 민인 스스로의 지역 개발 노력을 해명하는 작업이 진척되었다.[4] 전국적 상품 유통망이 함경도로 연결되면서 北商 집단이 성장하여 함경도 상업 발달을 주도한 사실 또한 구명되었다.[5] 함경도의 이러한 지역적 발전은 문사층의 의식 성장과도 궤를 같이 하여, 함경도 문사층은 지역 名儒를 중심으로 자신의 學統을 주장하기도 했다.[6]

한편, 1883년 함경남도 德源 인근 元山港에 '元山學舍'가 설립된 사실이 밝혀지고 그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학교'였다는 견해가 제시됨에 따라[7] 근대 신식 교육 기관에 관한 논의가 활성화되었다.[8] 이처럼 함경도의 교육 기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諸 논의들은, 함경도를 전통적인 무향으로 파악하던 이전 시기의 맥락에서 일견 벗어난 것처럼 보일 수 있었다. 그리하여 '원산학사'의 설립에 있어 지역 외부의 동인인 국가의 교육 정책과 '開港'이 강조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외부 동인에 주로 초점을 두고 함경도의 교육적 변화에 접근하는 경향은 대한제국기 연구에서도 이어졌다.[9]

그러한 가운데, 함경도 지역 내부의 변화 동인은 거의 주목받지 못하였다. 이는 무엇보다 西北 지역에 관한 기존 연구가 平安道를 중심으로 이루어져[10] 함경도 향촌 사회에 관한 연구 자체가 부족했던 것에 기인했다고 생각된다.

---

4) 姜錫和, 「英・正祖代의 咸鏡道 地域開發과 位相强化」, 『奎章閣』 18, 1995.
강석화, 앞의 책, 2000.

5) 高丞嬉, 「18, 19세기 咸鏡道 地域의 流通路 발달과 상업활동」, 『歷史學報』 151, 1996.
高丞嬉, 「18, 19세기 咸鏡道 地域商人層의 성장」, 『綠友硏究論集』 37, 2000.
고승희, 『조선후기 함경도 상업 연구』, 국학자료원, 2003.

6) 정해득, 「朝鮮後期 關北 儒林의 形成과 動向」, 『경기사학』 2, 1998.

7) 愼鏞廈, 「우리나라 最初의 近代學校 設立에 대하여」, 『韓國史硏究』 10, 1974.

8) 鄭在傑, 「韓國 近代敎育의 起點에 관한 硏究」, 『敎育史學硏究』 2・3, 1990.
정재걸, 「원산학사에 대한 이해와 오해」, 『중등우리교육』 1, 1990.
具姬眞, 「韓國 近代改革期의 敎育論과 敎育改編」,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김태근, 「개항 후 지방 교육 체제의 변화 연구」, 『東洋學』 74, 2019.

9) 李松姬, 「韓末 漢北興學會의 組織과 活動에 關한 考察」, 『梨花史學硏究』 15, 1984.
趙顯旭, 「漢北興學會의 조직과 활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18, 2002.
김형목, 「함경북도 鏡城의 私立咸一學校維持契」, 『한국독립운동사연구』 55, 2016.
김형목, 「함경북도 경성의 사립보성학교 관련자료」, 『한국독립운동사연구』 57, 2017.

10) 金仁杰, 「조선후기 鄕村社會 변동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1.
고석규, 『19세기 조선의 향촌사회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1998.
김인걸, 『조선후기 향촌사회 지배구조의 변동』, 경인문화사, 2017.

이처럼 함경도 향촌 사회사와 교육사가 서로 연결되지 못하고 단편적 이해에 머무르면서 함경도 지역 내부의 동인은 정당한 위상을 부여받지 못했다. 어떠한 변화는 사회 외적 동인과 내적 동인이 서로 맞물려서 생성되므로, 함경도 교육의 변화상 역시 지역 외부 동인과 함께 내부 동인을 살펴보아야 인과 관계를 좀 더 구조적으로 파악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조선말 함경도 향촌 사회의 질서 변동을 배경으로 대한제국기 함경도 내 전통 교육 기관이 신식 학교로 변환되는 과정을 밝히고자 한다. 먼저 조선말 함경도 향촌 사회 내부에서 일어난 갈등이 전통 교육 기관인 양사 기관의 확산을 불러왔음을 살필 것이다. 이어 『鄕憲』과 『關北鄕飮酒禮』 등 함경도 儒鄕層을 중심으로 작성된 자료를 바탕으로 그들의 문제의식 변화를 파악한 후, 漢北興學會의 설립과 이후 본격적으로 전개된 양사 기관의 변환을 해명하고자 한다. 이처럼 함경도 내 주체들의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함경도 교육의 변화상을 구명하는 작업은 향촌 사회와 지역 교육의 관계를 분명히 하는 한편, 근대 민인 의식의 성장이 지역 사회 내 보편교육의 확산에서 출발하였음을 보이는 데에도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

2. 갑오개혁 전후 함경도 儒·鄕 갈등과 養士 機關의 확산

1) 世儒·鄕儒層의 校任 쟁탈

함경도는 고려시기 '兩界'로 통칭된 북방 군사 지역 중 '東界'를 기초로 한 지역이다. 상대적으로 추운 기후와 척박한 토지, 邊境 인접 등 여러 지리적 조건으로 인해 안정된 삶을 영위하기 힘든 곳이었지만, 李成桂와 그 선조들이 활동한 주 무대였다는 점에서 특별한 지역으로 인식되었다.[11] 함경도는 변경 지역의 특성상 무예에 종사하는 자가 높고 귀하며, 유학에 종사하는 자는 상대적으로 그 지위가 낮았다.[12] 이에 함경도에서는 文보다는 武를 업으로 삼으려는 풍조가 강하게 나타났다.[13]

이로 인해 문사층의 향촌 지배는 삼남 지역에 비해 견고하지 못하였다. 더구나 함경도에는 농업과 상업 등 산업이 발달하지 못하여 타 지역에 비해 경제력이 뒤떨어졌다. 이에 노비가 있는 유력자가 열에 한둘밖에 없으며, 학문에 뜻이 있어도 직접 호미를 쥐고 일을 하느라 뜻을 이루기가 어렵다는 기록이 읍지에 남아있다.[14]

문사층이 유학 공부를 통해 관직을 얻기 위해서는 과거에 급제하여야 했다. 그런데 함경도가 서울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지리적 특징은 함경도 문사가 급제하는 데 크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요소였다.[15] 함경도 文科 및 生員 初試의 試取額數는 전국에서 가장 적었는데,[16] 漢城試를 보기 위해 한

---

11) 『世宗實錄』 卷102, 世宗 25年 10月 24日 乙巳.
"咸吉道 祖宗興王之地 實周之邠岐 漢之豐沛 唐之太原 固非他道之比 然其爲赤子則一也"
12) 『輿地圖書』, 「咸鏡北道富寧府邑誌」, 風俗.
13) 『北塞記略』, 「孔州風土記」.
14) 『輿地圖書』, 「咸鏡南道北青府邑誌」, 風俗.
15) 『輿地圖書』, 「咸鏡南道端川府誌」, 風俗.
16) 『大典通編』에 따르면, 生員 初試에서 함경도 鄕試의 시취액수는 35인으로 황해도와 더불어 가장 적었다. 다른 지역의 경우 경상 100인, 충청/전라 각 90인, 경기 60인, 강원/평안 각 45인에 이르렀다. 漢城試에서는 200인을 선발하였다. 이는 『經國大典』에서의 인구 비례에 따른 시취액수 규정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변화하는 전국 대비 도별 인구수를 반영하지는

번 왕래하는 데 드는 비용이 1년 치의 糧穀과 비견될 정도였으니 빈한한 선비는 엄두를 낼 수도 없었다.[17]

유력한 가문의 자제라 하더라도 과거 공부에만 매진하는 것은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큰 부담이 있는 일이었다. 漢北興學會의 중추 인물인 吳相奎는 함경북도 會寧의 名家 출신이었는데 여러 번 과거에 응시하였음에도 급제에 모두 실패하였다.[18] 이에 오상규 집안의 家力이 점점 떨어져, 옛 田庄을 팔고 이사를 가야만 하였다.[19] 과거에 여러 차례 응시하더라도 연달아 떨어지는 일이 많다보니, 함경도의 민인은 仕宦이 되려는 것은 곧 가산 탕진이라 여기고[20] 비록 재능이 있어도 호미를 잡거나 장사를 하는 등 노동을 통해 생업을 이어나가려고 하였다.[21]

이처럼 과거 급제를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들었지만 이를 뒷받침할 기반을 갖고 있는 士族은 적었다. 또한 멀리 떨어져 있는 지방의 한미한 족속〔遐鄕冷族〕이라는 인식은 설령 과거에 급제한다고 하더라도 중앙 요직으로

않은 것이었다.

〈표 1〉 각 지역별 인구 및 전체구성비(1780~1789년 평균)

지역	인구(명)	전체구성비
서울	195,399	3%
경기도	640,517	9%
충청도	865,117	12%
전라도	1,208,431	16%
경상도	1,581,420	22%
강원도	332,027	5%
평안도	1,280,904	17%
함경도	663,562	9%
황해도	567,169	8%

출처 : 오기수, 「조선시대 각 도별 인구 및 전답과 조세부담액 분석」, 『세무학연구』 27, 2010, 248쪽에서 재구성.

17) 『北行隨錄』, 「敎士」.
"漢城試則一番來往動費一年之糧 貧寒之士不得生意"

18) 오상규는 끝내 급제하지 못하다가, 1881년 병조판서 趙寧夏의 천거로 직에 나아갔다(『槐庭雜誌』, 「槐庭年錄」 참조).

19) 『槐庭雜誌』, 「槐庭年錄」.
"家力漸墜 賣瑞洞舊庄 移居于仁洞"

20) 『北行隨錄』, 「敎士」.
"故北人 以仕宦爲蕩産業之資誠非過語也"

21) 『北行隨錄』, 「敎士」.
"士家子弟 恥居儒名 雖有才慧者 或操鋤 而不求聞達 或販布 而自寓生涯"

의 진출을 어렵게 하였다.[22]

이와 같은 이유들로 함경도의 사족층은 향촌 사회에서의 위상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鄕任·武任·校任 등의 향촌 직임을 귀하게 여겼다. 함경도의 지방행정기구로는 크게 鄕廳, 作廳, 將廳 세 가지가 있었다. 향청의 직임으로는 座首나 監官 등이 있었고, 질청의 경우 戶長과 吏房 등이 있었는데, 함경도에서는 장청의 직임을 향청의 감관이나 질청의 호장 등이 분담하기도 하였다.[23] 향청·질청의 鄕任과 장청의 武任이 수령의 지방 행정을 보조하거나 수행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면, 校任은 鄕校 등 지역의 공식 교육 기관에서 직책을 수행하고 있었다. 이들은 모두 지방 향촌 사회를 운영하는 데 필수적인 직책들이었고, 향임과 무임, 교임을 맡는다는 것은 향촌 내에서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갖게 된다는 의미와도 같았다.

함경도 관찰사를 역임하였던 申箕善은 이러한 職任과 관련하여 그 명칭과 의미를 端川 지역의 비석에 자세히 기록하였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우리 동쪽의 제도 내 각 군 향교에는 예로부터 敎授와 訓導 등의 관리가 있었다. 지금은 폐지되고 다만 齋任 약간을 두었는데 무릇 校에 임하는 자를 통상 儒라 불렀다. 향청에는 丞을 두지 않았고 다만 座首 이하 약간이 있었는데 좌수는 지금 鄕長이라 불리우고 무릇 향청에 임하는 자를 통상 鄕이라 불렀다. 유와 향의 직임은 모두 관직이 아닌데, 邑人은 모두 그것을 귀히 여겼다. … 文行이 있어 사표가 될 만한 邑儒者를 儒任으로 삼았다.[24]

비석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는 점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로, 당시 함경도에서 '儒'와 '鄕'은 서로 다른 범주의 것을 지칭하는 말이었다.[25] 조선

---

22) 『承政院日記』, 正祖 18年 11月 24日 戊申 ; 『陽園遺集』 卷13, 「端川郡儒鄕新舊合同碑」.

23) 박경하, 「19世紀 咸鏡道 安邊의 鄕廳·作廳 職任과 人事慣行」, 『역사민속학』 44, 2011, 146쪽.

24) 『陽園遺集』, 「端川郡儒鄕新舊合同碑」.
"我東之制 各郡鄕校 舊有敎授訓導等官 今廢而但置齋任若干人 凡任於校者 通謂之儒 有鄕廳而不置丞 但有座首以下若干人 座首今謂之鄕長 凡任於鄕廳者 通謂之鄕 儒鄕之任 皆非官職也 而邑人皆貴之 … 有文行可以師表邑儒者爲儒任"

시기 향촌 사회의 지배층인 儒鄕層이 分岐하여 '유'와 '향'으로 지칭되기 시작한 시기는 17~18세기 무렵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경향은 점차 전국으로 확산되었다.[26] 대개 '유'는 향교 및 서원에 기반을 둔 유림이었고 '향'은 향청 등에 기반을 둔 향족을 일컫는 말이었다.[27] 그런데 함경도에서 '향'은 '유'보다 세력이 더 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世宗朝 土官制의 시행은 관북의 유력자를 회유하기 위함이었는데, 토관은 점차 향리로 轉化하였다. 이들은 향리의 직분이었으나 향촌 사회에서 큰 영향력을 갖고 있었다.[28] 따라서 함경도에서 '향'은 舊鄕, '유'는 新鄕에 가까웠음을 짐작할 수 있다.

둘째, 齋任 즉 교임의 경우는 學行이 있어야 차정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함경도 지역에서 학행으로 이름난 이들은 소위 名門世族이 아닌 경우가 많았다. 富寧의 姜祥國은 멀리 떨어진 지역에 있는 砥平(현재의 경기도 양평)의 山林에서 그에게 예를 표할〔執贄〕 정도로 학행이 두드러진 문사였으나 한미한 가문의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인다.[29] 또 함경도를 대표하는 名儒 중 한 사람인 林宗七은 지방관 등에게 천거되어 여러 관직에 수차례 제수되었으나 나아가지 않고 오직 성리학의 공부에 힘쓰며 제자를 길러내었다.[30] 임종칠의 제자 金璣衡은 마흔의 나이에 이를 때까지[31] 과거에

---

25) 각종 직임의 명칭이나 역할은 1906년에 이르러서도 크게 바뀌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건양 원년(1896)의 새로운 지방제도를 그대로 따르지 않고 옛 법식에 몇몇 새 名目 등을 添入하는 방식으로 官屬을 운영하였는데, 이는 1896년 新制 수립 이전의 각종 수입이 줄어들까 우려한 결과라는 기사가 황성신문에 실렸다. 『皇城新聞』, 1906.6.5. "咸北地方行政及財務報告 〔續〕" 참조.

26) 김인걸, 앞의 책, 2017, 157쪽.

27) 위의 책, 171쪽.

28) 정해득, 앞의 논문, 74쪽.

29) 『北幕日記』 10月 初3日. 北評事 朴來謙이 그를 궁벽한 처지에서도 독서하는 사람이라 일컬은 점에서 그가 부유한 집안의 사람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30) 朴珪壽는 임종칠의 제자들에게 부탁을 받아 그의 문집인 『屯塢集』의 서문을 지었는데, 임종칠이 관직에 나아가지 않은 일에 대해 먼저 스스로를 다스리고 그 후 다른 이들을 다스리는 일에 비유하였다. 그러면서 지역의 학자를 권면하고 교화를 행한 일을 칭송하였다. 그런 와중에 박규수는, 허름한 집에서 스스로 수양하는 자를 '善士'라 일컫고 관직에 있는 자만 못하다고 여긴다는 사람들의 인식을 언급하기도 하였다. 이는 임종칠을 비롯한 관직에 나아가지 못한 함경도 사족층이 향촌에서 어떤 처지에 있었는지를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瓛齋集』 卷4, 「屯塢集序」 참조).

급제하지 못하다가,[32] 관찰사의 천거로 발탁되어 중앙 관직에 나아갔지만 2년 후 高山察訪이 되어 내려왔다.[33] 그는 향교의 재원을 마련하는 등 많은 선비로 하여금 藏修하게 하였다.[34]

셋째, '儒'와 '鄕'의 직임이 모두 관직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함경도 지역의 민인은 모두가 그것을 귀하게 여겼다. 그 직임을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었던 것이, 함경도 지역 출신으로 과거에 급제하여 중앙에 진출하고 그를 바탕으로 향촌에서 대대로 세를 확장하는 가문이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급제하지 못한 사족층은 향촌사회에서의 영향력이 낮아질 수밖에 없었고, 자신들의 세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방 조직 내에서의 직임을 맡아 실력을 행사해야만 하였다. 그 직임은 앞서 언급한 향임, 교임, 무임 등이었을 것이며, 모두가 이를 맡기 위해 노력하는 바 당연히 귀하게 여겨지는 결과가 나타났다.

향촌 사회에서 직임을 맡아 수행하는 것은 자신의 위상을 높임과 동시에 민인에게 실력을 증명하여 향촌 사회에서의 영향력을 증대시키는 일이었다. 따라서 향임과 교임 등의 직임은 함경도 지역의 모든 민인이 선망하는 대상이었고, 이를 획득하기 위한 여러 형태의 분쟁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35]

1882년 魚允中은 西北經略使로 임명되어 서북 지역을 돌아보고 각종 폐단을 바로잡기 위한 장계를 올렸다.[36] 이에 대해 함경도 유생들은 어윤중이 함경도 각지를 다니며 폐단을 15가지나 바로잡았다며 칭송하였다.[37] 바

---

31) 마흔을 넘는 나이는 老儒로 인식되었다. 申箕善은 마흔이 넘은 宗人인 申杓에게 老儒라 칭하며 급제나 詞章을 위함이 아닌 성인에 도달하기 위한 방법으로의 독서를 강조하였다(『陽園遺集』, 「送宗人杓序」 참조).

32) 김기형은 지역에서 향음주례를 행하였고 교임을 맡아 직무를 수행하기도 한 인물이었다(『眉山集』 卷12, 「司諫金君璣衡墓誌銘並序」 참조).

33) 『眉山集』 卷12, 「司諫金君璣衡墓誌銘並序」 ; 『承政院日記』, 高宗 13年 7月 12日 庚午 ; 『承政院日記』, 高宗 15年 12月 28日 癸卯.

34) 임종칠의 다른 제자인 金履一 역시 향약을 준행하였으며 그 학행이 향촌에 모범이 되었다는 평을 받았다(『眉山集』 卷11, 「松谷金公履一墓碣銘竝序」 참조).

35) 『陽園遺集』, 「端川郡儒鄕新舊合同碑」.
"儒鄕之任 皆非官職也 … 奔競興而傾軋生"

36) 『高宗實錄』 卷19, 高宗 19年 10月 12日 乙丑.

로잡은 것에는 安邊・永興・北靑・端川 등에서 고질이었던 “東西兩儒”의 폐단도 있었다.[38] 즉 함경도 향촌 사회에는 이전부터 ‘儒’로 칭해지는 두 세력 간의 갈등이 있었는데, 이를 어윤중이 함경도 지역을 시찰하는 과정에서 바로잡았던 것으로 보인다.[39] 그러나 그 봉합책은 오래 가지 못하였고 어윤중이 떠난 후 갈등은 재발하였다.[40]

여기서 등장하는 ‘東西兩儒’는 향교의 東齋・西齋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향교의 靑衿錄과 校生案에 성명을 등재하는 일은 향촌 사회에서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것과 같았다. 동재 유생은 청금록에 성명이 등재되었는데, 이들은 교생안에 등재된 이들과 달리 높은 신분을 갖고 있었다.[41] 즉 서재보다 동재의 인물이 신분이 높았는데, 동유와 서유의 명칭에도 동일한 맥락이 적용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는 함경도에서 儒案에 冒錄하여 교임을 탐하려 했던 자들이 西儒라 호칭했던 일과 연관지어 생각해볼 수 있다.[42]

그런데 서북 지역의 향권은 주로 향임을 맡았던 향인층이 갖고 있었다. 이들은 삼남 지역의 사족에 비견되는 세력을 갖고 있었다.[43] 때문에 앞서 언급된 ‘鄕’과 ‘儒’는 각각 동유와 서유, 구향과 신향에 가까운 위치였을 것이다. 이 동유와 서유는 다시 ‘鄕’과 ‘儒’와 결합되어 ‘鄕儒’와 ‘世儒’・‘新儒’로 지칭되었으리라 짐작된다.[44] 먼저 ‘鄕儒’는 향청과 질청에서의 향임을 주로

---

37) 『承政院日記』, 高宗 21年 2月 24日 庚午.
“昨年春特遣臣魚允中 汝其經略之 夫允中 原濕咨諏 凡民間疾苦 未之革也 猶恐有聞而矯巨瘼者 十有五焉”

38) 『承政院日記』, 高宗 21年 2月 24日 庚午.
“八曰 革安邊・永興・北靑・端川東西兩儒之弊”

39) 어윤중의 함경도 지역 시찰 경로와 내용에 관하여서는, 김태웅, 『어윤중과 그의 시대』, 아카넷, 2018을 참조.

40) 어윤중이 함경도 지역을 떠난 후 그가 실시한 것들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는 이유는 법으로 判下되지 못한 까닭이니, 어윤중의 定式을 법제화해달라는 상소를 함경도 유생 李冕厚 등이 올리기도 하였다(『承政院日記』, 高宗 21年 2月 24日 庚午 참조).

41) 尹熙勉, 『朝鮮後期 鄕校硏究』, 일조각, 1990, 10~28쪽.

42) 『鄕憲』 卷2.
“如有冒錄儒案號稱西儒濫差校任者 一併逐出毋敢接迹事”

43) 고석규, 앞의 책, 339~342쪽.

맡고 있던 세력이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들은 무임도 병행하였던 것으로 보아 함경도 향촌 사회에서 큰 영향력을 갖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에 비해 '世儒' 혹은 '新儒'는 다른 지역으로부터 移來하여 정착하여 향유에 비해 세력 기반이 약하였다.[45] 즉 이 둘을 함께 일컬은 말이 '東西兩儒'였을 것이다. 세유가 향유에 대해 내세울 수 있었던 것은 주로 유학 학문의 우위였다. 세유는 그 우위를 바탕으로 주로 교임을 맡았는데 점차 거세지는 향유의 침탈을 막기는 어려운 점이 많았다.[46]

게다가 예전부터 함경도 지역에서는 향임을 주로 맡았던 鄕人·鄕儒를 세유와 더불어 교임에도 차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19세기에 이르러 향유층이 교임을 나누어 맡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자신들의 우위를 바탕으로 교임을 모두 차지하려고 하니, 세유층은 이에 반발하여 상소하였다.[47] 이에 함경도의 향유층은 太祖와 孝寧大君이 내린 鄕錄案을 그대로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며 향촌 사회에서 자신들의 위상을 보존하고자 하였다. 즉 함경도의 列邑에서는 약 500년 전에 마련된 향록안에 든 자손만 향임과 교임을 맡을 수 있다는 내용을 고수하며 세유라 불리는 세력에게 직임을 줄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48] 이러한 향유와 세유층의 충돌이 바로 어윤중이 혁파

---

44) 함경도에서는 향촌 직임의 차임과 관련하여 孝寧大君이 세운 鄕憲碑의 내용을 기준으로 삼아 준행하고 있었는데, 鄕儒는 당시의 향안에 입록된 자손으로서 향촌 직임을 맡아왔던 기층 세력이었고 世儒 및 新儒는 다른 지역에서 유배를 온 인물의 자손 등이 새로이 자리를 잡아 향촌사회에 영향력을 드러내었던 세력이었다(『高宗實錄』 卷21, 高宗 21年 6月 6日 戊寅 ; 『承政院日記』, 高宗 35年 7月 19日 庚午 참조).

45) 『承政院日記』, 高宗 35年 7月 19日 庚午.
"本郡 有世儒鄕人之名 世儒者 自京自南 流寓簪纓之裔也 鄕人者 本土土著之類也 大凡儒爲校任 鄕爲鄕任 卽擧一國各省通規 而惟關北一路 儒鄕竝擧 已爲鄕儒之幸"

46) 『承政院日記』, 高宗 35年 7月 19日 庚午.
"澹寧齋卽世儒專力所構之書齋 而鄕人竝爲佔奪 仍爲移安先正臣閔文忠公鼎重影幀于老德院 以固渠輩窠窟之所者也"

47) 『承政院日記』, 高宗 35年 7月 19日 庚午.
"彼鄕人輩 以無饜之慾 售竝呑之計 衆寡强弱 勢不相敵 世儒之被奪齎鬱 于今六十有餘年之間 于邑于營于直指于政府 控訴奔走 儒鄕之間 互相勝負 而究其本 則世儒以分半竝擧爲請 而鄕人以獨專爲說"

48) 『高宗實錄』 卷21, 高宗 21年 6月 6日 戊寅.

하고자 한 함경도 동서양유의 폐단이었다.

함경도에서 교임을 둘러싼 갈등은 19세기 전반부터 일어났는데 北靑에서 본격화되었다. 北靑의 향유층은 1871년 예조에 호소하여 향헌비를 깎아 북청 校宮 앞에 세웠는데,[49] 이는 그 비에 적힌 '擯斥新儒' 즉 신유를 물리치라는 내용을 향촌 사회에 널리 알리기 위함이었다. 이는 세유의 도전을 뿌리치는 한편 기존 향촌질서에서의 자신들의 우위를 대내외적으로 공포하는 일이었다.

그런데 당시 南兵使였던 尹雄烈은 향헌비에 있는 '擯斥新儒'를 보고 인심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비석에 있는 그 글자를 산삭하였다.[50] 이에 北靑의 향유들은 크게 반발하였고 咸鏡監司 林翰洙 역시 이 소식을 접하고 윤웅렬을 처벌해야 한다는 장계를 올렸다.[51] 이는 함경도에 부임한 지방관 역시 향유와 세유층의 충돌에 무관할 수 없었음을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 이어서 윤웅렬의 아들인 尹致昊는 아버지의 행동에 대해 해명하는 장계를 올렸는데, 중앙에서는 이에 관하여 선뜻 양쪽 의견 중 어떤 것이 옳다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였다.[52]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세유들은 憲宗 연간에 이미 교임에 대해 유·향을 번갈아 차임하라는 기록이 있음을 상소문에 밝히고 호소하였다. 또한 1881년 領中樞府事 李最應이 유·향을 서로 화합하게끔 한 바와 1883년 영중추부사 洪淳穆이 이전의 기록을 바탕으로 유·향을 번갈아 차임하는 일을 지키지 않으면 처벌하겠다는 발언이 있었으나 여전히 지켜지지 않는 상황을 한탄하였다.[53]

"鄕案 刊行于北道列邑 參于錄案 子孫則得爲鄕任校任 餘外閒雜不得許入 … 新儒別技軍輩 皆可謂斁倫亂常"

49) 『高宗實錄』 卷21, 高宗 21年 6月 6日 戊寅.
"故辛未年北靑鄕儒輩 往訴禮曹 依該曹關文 立鄕憲碑于校宮"

50) 『高宗實錄』 卷21, 高宗 21年 閏5月 5日 戊申.
"去辛未年 北靑人私立一碑 碑額大書以擯斥新儒 … 臣父 謹依判下事目 斥儒等字許以刊剝而已"

51) 『高宗實錄』 卷21, 高宗 21年 5月 14日 戊子.

52) 『高宗實錄』 卷21, 高宗 21年 閏5月 5日 戊申.

53) 『承政院日記』, 高宗 21年 閏5月 10日 癸丑.

北靑에서의 이러한 유·향의 충돌은 다른 함경도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의 형태로 일어났다. 咸興 이남의 향유들은 열읍에 舊例를 회복해달라고 고하기도 하였다.[54] 구례는 앞서 언급한 향록안에 담긴 기준을 말하는 것이었으며, 구례의 회복은 직임을 둘러싼 충돌 속에서 상대의 근거를 약화시키기 위한 의도가 담긴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利原과 端川 등지에서는 그 갈등이 오랫동안 봉합되지 않았다. 유·향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 중앙에서는 재능이 있다면 鄕外者라도 鄕案에 入錄할 수 있다는 지시를 내렸다. 이는 곧 명목상이라 하더라도 향촌의 직임을 맡을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利原·端川의 향유들은 이러한 중앙의 조치를 잘 받아들이지 않아 향유의 갈등은 지속되었다. 1904년에 이르러서까지도 상황이 진정되지 않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지역을 직접 언급한 訓令이 내려지기도 하였다.[55]

이처럼 함경도에서 향촌 직임을 둘러싼 유·향의 충돌은, 기존 토착 세력인 향유와 타 지역에서 와서 정착한 세유 등의 세력이 교임을 두고 충돌하였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향유에 비해 상대적으로 세력이 약하였던 세유는 그 해결책으로 직임을 봄·가을로 번갈아 차임할 것을 중앙에 호소하였고,[56] 중앙에서도 이를 받아들였으나 그것을 함경도 각 사회에서 실제로 구현하는 일은 쉽지 않은 문제였다.

---

54) 『承政院日記』, 高宗 21年 2月 24日 庚午.
“奸吏輩付囑亂民, 以爲復舊例, 控于省邑”
55) 『起案』 卷9, 「訓令」 第71號, 光武 8年 7月 9日.
“惟獨利原 端川兩郡舊鄕이 不遵令飭ᄒᆞ고 一向玩愒云ᄒᆞ니”
56) 『承政院日記』, 高宗 21年 閏5月 10日 癸丑.

2) 養士 機關의 확산과 鄕約·鄕禮의 시행

함경도에는 양사계나 양사재와 같은 양사 기관이 일찍이 존재하고 있었다. 함경도에서는 다른 지역에 비해 이른 시기인 15세기에 長都會라는 道 단위 교육 기관이 설립되었다. 장도회는 李施愛의 난 이후 함경도 유림의 불만을 수습하기 위해 설립되었는데 咸興·鏡城·鍾城 지역 養士廳의 모체가 되었다. 이러한 양사 기관은 점차 하부 단위로 확산되었다.[57]

사대부의 향촌 지배력이 강한 지역에서는 양사 기관의 설립이 부진하였고, 그 지배력이 비교적 약했던 곳에서는 양사 기관의 설립 빈도가 높았다.[58] 함경도의 각 지역은 후자에 가까운 모습들을 갖고 있었다. 양사 기관이 점차 道 단위에서 하부 단위로 퍼지면서, 官 이외에도 지역 사회나 문중 혹은 개인이 주요한 설립 주체가 되었다.[59] 양사 기관의 증가와 설립 주체의 확대는 養士契나 養士廳, 養士齋와 같은 기존 양사 기관의 인적 구성이나 운영 방식의 변화를 가져왔다.[60]

그런데 갑오개혁 이후 각종 新制가 반포되고 그에 따라 과거제가 폐지되었다. 이에 유생을 선발하여 居接시키고 이들에게 강학을 실시하여 과거에 급제할 수 있도록 하는 양사 기관의 역할은 위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경도 지역에서는 양사 기관이 꾸준히 확산되었는데, 이는 함경도 내 양사 기관의 설립 목적이 과거 급제에만 있지는 않았음을 보여준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함경도 지역에서는 향유와 세유 간의 교임을 둘러싼 갈등이 있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각각은 중앙 정부에 호소하는 등의 행보를 취하였다. 갑오개혁 이후 향촌 직임의 任窠가 더욱 줄어들자 이러한

---

57) 姜大敏,「朝鮮朝 咸鏡道地方의 養士廳에 관한 考察」,『釜大史學』17, 1993 ; 강대민,「北道地方의 養士機構에 관한 小考」,『정신문화연구』17(4), 1994.

58) 丁淳佑,「朝鮮後期 養士齋의 性格과 敎育活動」,『精神文化硏究』17, 1994.

59) 1883년 함경남도 德源 인근 元山港의 '元山學舍' 즉 '敎英齋'는, 전통 교육을 근간으로 삼고 시무 교육을 병행한 개량 형태의 양사재에 가깝다는 연구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김태근, 앞의 논문, 2019 참조.

60) 함경도 양사 기관의 인적 구성과 운영 방식에 관련하여서는, 姜大敏, 앞의 논문, 1993을 참조.

갈등은 격화되었다. 1894년 각종 新制의 반포에 이어 1896년에는 개정된 지방제도가 시행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鄕任 4窠가 혁파되어 鄕長 1窠가 되었고, 將校 5窠가 巡校 4窠로 각각 그 자리가 줄어들었다.[61] 향유층은 임과가 줄어든 만큼 직임 확보를 위해 더욱 노력하였을 것이다.

이에 세유층은 향유층의 교임 침탈이 날로 거세지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양사 기관을 설립하였다. 세유층은 이전 시기부터 주로 교임을 담당하고 있었던 만큼, 養士를 위한 조직체나 시설물 등의 양사 기관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었다. 과거제는 이미 폐지되었으므로 양사 기관에서의 공부는 爲己之學과 같은 자기 수양을 위한 학문이 근간을 이루고 있었다. 永興의 유생 姜念周는 띳집에서 살고 감자를 씹으면서도 독서에 대한 열의를 놓지 않았는데, 그는 誠一齋를 세우고 그곳에서 修己의 학문을 추구하였다.[62]

이러한 양사 기관은 향약과 향례 시행의 중심 공간으로 기능하였다. 咸興의 名儒였던 韓晦善은 지역의 민인들을 모아 講會를 열였는데, 자신들이 비록 遐裔에서 자랐으나 士習을 바로 하고 條約을 엄히 지켜 민속을 도탑게 할 것을 강조하였다.[63] 그 강회에 이어 1898년 2월에 양사재를 짓기 시작하였는데 수개월이 안 되어 완공하였다. 한회선은 이 양사재의 이름을 經學齋라 짓고 유생 李英敎를 崔益鉉에게 보내어 序文을 부탁하였다.[64] 최익현은 당시 쇠락하는 유학의 위상을 안타깝게 여기고 있었는데, 이에 關北 지역에서 경학을 이름으로 내세운 양사재의 설립 소식을 듣고는 기뻐하였

---

61) 『鄕憲』 卷2.
"自甲午更張後 鄕任四窠革爲鄕長一窠 將校五窠革爲巡校四窠"

62) 『陽園遺集』, 「碧棲亭記」.

63) 『勉菴集』 卷21, 「經學齋記」.
"吾輩雖生長遐裔 無所猷爲 抑非五百載化育中一物乎 値玆板蕩 扶綱常以尊朝廷 講聖賢以正士習 嚴條約以敦民俗"

64) 이영교는 1900년 중추원의장에게 올리는 헌의서에서, 1898년 咸興 段洞의 箕聖廟 설립과 관련한 한회선의 행적을 언급한 바 있다. 이 헌의서에는 함경남북도유생의 명목으로 총 83인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다. 그 명단에는 『관북향음주례』를 비롯하여 한북흥학회와 관련한 인사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照會原本』 卷1, 「獻議書」, 光武 4年 5月 참조). 한회선의 아들인 韓溥憲 역시 그 명단에 포함되어 있는데, 한부헌은 후일 함흥의 豐興學校에 재원을 내기도 하였다(『大韓每日申報』, 1907.3.26. "夫國勢의 進明과 人志의 發達이").

다.[65]

이처럼 양사 기관을 중심으로 민인의 교화를 위해 향약과 향례 등을 시행하는 것은 시행 주체의 영향력을 높이는 일이었다. 세유층은 이를 통해 교임을 둘러싼 경쟁에서 밀려나 세력이 약화되는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향유층을 견제하여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함경도 각지에서 나타나는데, 安邊의 양사계인 '鶴城襟紳契'의 설립 과정에 잘 드러난다. 1900년 申箕善은 璿源殿에 있는 太祖高皇帝의 御眞을 받들어 오라는 使命을 받고 永興을 왕래하였던 이력이 있는데,[66] 그 무렵 학성금신계의 서문을 지어주었다.[67] 여기에는 당시 安邊의 상황에 관해 언급되어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불행히도 최근에 豪紳과 莠民이 鄕綱을 어지럽히고 선비의 풍습을 무너뜨렸으니 吏治가 그 견제에 놓이고 齊民이 그 재산〔蓋藏〕을 지킬 수 없다. … 前參書 崔達斌,[68] 前察訪 金鍾珍, 前主事 金器宋,[69] 申用均 등은 개연히 이를 바로잡는 대책을 생각하여 동지를 이끌고 契會를 설립하였다. … 향음주례를 행하고 이어 향약절목을 강론하였다. … 선을 장려함에 방도가 있었고 법에 어긋나는 일을 하면 벌이 있었다. 官政에 참견〔干預〕하여 마을에 폐를 끼치는 자는 배척하여 참여시키지 않았다. 秩然히 모이고 肅然히 물러나니 대다수의 사람들에게〔庶幾人〕 勸戒함이 있었다.[70]

---

65) 『勉菴集』 卷21, 「經學齋記」.
"何等是聖人 何等是經學 尙置諸笆籬而不遇焚坑則幸矣 於此時而一區咸興 有經學齋 … 何其乎北士之起余懷也"

66) 『承政院日記』 高宗 37年 9月 7日 乙亥.

67) 『陽園遺集』 卷7, 「鶴城襟紳契序」.
"余嘗奉使過其地 … 今於是契之設 樂聞而爲之序"

68) 최달빈은 1899년 內部에 청원하여 안변에 병원을 설립한 바 있는데(『皇城新聞』, 1900.5.19. "安邊病院" ; 『帝國新聞』, 1900.5.17.), 안변 舊營洞의 文化契 儒生을 대표하여 황성신문에 內外國文學을 가르치는 사립학교의 광고를 내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아 유림의 지위 역시 갖고 있었던 인물이었다(『皇城新聞』, 1902.3.3. "安邊郡舊營洞文化契儒生이").

69) 김기채는 1908년 大東學會 安邊郡 支會의 評議員長을 맡은 이력이 있다(『大東學會月報』 第7號, 1908.8.25. "會員錄(續)").

70) 『陽園遺集』 卷7, 「鶴城襟紳契序」.
"不幸邇年豪紳莠民 亂鄕綱而壞士習 吏治爲其牽制 而齊民不能保其蓋藏 … 前參

이 安邊 지역 양사계는 호신과 유민을 경계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는데, 여기서 호신은 향유층을 지칭하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세유는 향촌 사회에서 우위를 점할 의도로 향유층의 행태를 비판하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양사계를 설립하였음을 천명하였다. 향약을 遵行하고 鄕飮酒禮를 시행하거나 鄕約節目을 강론하는 일은 향촌 사회에서 그 행위 주체의 우월한 지위를 마련하는 것과 같았다. 향약과 향례 등 규약을 따르지 않으면 그에 따라 벌을 주거나 정사에 참여하는 일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듯 세유층은 적극적으로 양사 기관을 설립하여, 爲己之學을 위해 힘쓰거나 향약 등을 시행하여 향유층을 견제하고 향촌 질서를 그들을 중심으로 재편하려 노력하였다. 이를 통해 양사 기관이 함경도 각 사회에 확산되었고, 향약과 향례 등의 향촌 내 공동 활동이 더욱 활성화되었다.[71] 이는 향촌 사회에서 세유층의 영향력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다.

한편 갑오개혁 이후 새로운 교육 제도에 편승하여 향촌 주도권을 잡고자 하는 흐름도 나타났다. 중앙정부는 1896년 2월 學部令 제1호 「補助公立小學校規則」과 더불어[72] 9월에는 학부령 제5호 「地方公立小學校의 位置를 定하는 件」을 공포하였다.[73] 지방 공립소학교의 경우 중앙정부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설립과 운영을 꾀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보조금만으로는

書崔達斌 前察訪金鍾珍 前主事金器宋 申用均等慨然思矯捄之策 倡率同志 設爲契會 … 仍行鄕飮酒禮 繼講鄕約節目 … 奬善有方 犯科有罰 其干預官政 貽弊閭里者 擯不與焉 秩然而會 肅然而退 庶幾人有勸戒"

71) 北靑 지역 등에서 찾을 수 있는 都廳은 書齋나 鄕廳의 연장선에서 만들어진 마을 공동 회관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런 시설들은 많은 墓齋를 그대로 書塾으로 하여 그 규모가 宏遠하였기에 지역의 민인 다수를 수용할 수 있었다(『陽園遺集』「靑陽齋記」 참조). 그리하여 함경도 지역의 행정·교육 관련 시설들은, 사자놀이 등 각종 전통 민속놀이를 준비하거나 행하는 등의 지역 민인이 화합하는 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었다. 도청·서재 등의 공간과 민속놀이의 관계에 관하여서는, 전경욱, 『함경도의 민속』, 고려대학교출판부, 1999를 참조.

72) 『官報』, 「學部令」, 第1號 補助公立小學校規則, 建陽 元年 2月 25日.

73) 『官報』, 「學部令」, 第5號 地方公立小學校의 位置를 定하는 件, 建陽 元年 9月 21日.

학교를 운영하기에 부족하였기에 學部에서는 향교나 서원 등 지방 사회의 공유 재산을 통해 재원을 충당하라고 지시하였다.[74]

함경도에서도 소학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해 공유 재산이 활용되었다. 함경북도 11군의 유생 池泰燁 등은 학부에 청원하기를, 함북 각 군에 소학교를 설립하고 聰俊한 자제들을 교육하려 하는데 그 비용은 각 군의 養士畓 소출을 활용하려 하니 인허해 달라고 하였다.[75] 그러나 공유 재산을 활용하는 일은 반발에 부딪치기도 하였다. 1901년 德源港公立小學校에 경비가 부족하여 校屯田을 획부하라는 칙령이 내려졌는데, 鄕員이 이를 따르지 않고 완강히 거부하였다.[76] 향원은 즉 향임을 갖고 있던 향유였고, 소학교의 경비 마련을 통한 안정적인 운영은 그들의 기득권을 흔들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었으므로 거부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즉 소학교의 설립 및 운영에 있어 지역의 공유 재산을 활용하는 것은 향유와 세유의 갈등 양상 속에서 쉽지 않은 일이었음을 알 수 있다.

실제 함경도 내 공립소학교는 공유 재산의 활용보다는 지역 유생이나 유림의 지원 활동이 없었다면 설립 및 유지가 어려웠다. 永興의 유생 鄭國翰은 郡內 향교에 소학교를 설립하기 위해 養士費 2,000兩을 모집하고 학부에 교과용 책자를 청구하였다.[77] 端川郡公立小學校의 경우 그 명칭은 공립이나 학부에서 보조비를 받기는 요원한 일이었고 설립 이후 1906년까지 십수 년간 유림의 지원이 있었기에 학교의 유지가 가능하였다.[78]

함경도 각 지역에 확산된 양사 기관은 세유층이 소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주기도 하였다. 앞서 언급된 안변의 세유였던 최달빈은 安邊郡公立小學校 副校員을 역임하기도 하였는데,[79] 학교의 경비가 부족하여 폐교의 지경에 이르자 안변의 유림이 설립한 玉洞齋에 학교를 옮기고 그 보조금을 획부하여 교비에 보태자는 의견을 학무국장과 비서과장에게 제기하기

74) 鄭崇敎, 「대한제국기 지방학교의 설립주체와 재정」, 『한국문화』 22, 1998, 289~290쪽.
75) 『皇城新聞』, 1901.6.8. "咸北興學"
76) 『皇城新聞』, 1901.2.5. "鄕員頑拒"
77) 『皇城新聞』, 1899.8.24. "北郡設學"
78) 『皇城新聞』, 1906.11.30. "李氏熱心"
79) 『皇城新聞』, 1901.8.23. "學事"

도 하였다.[80] 이는 국가 교육 정책을 수용하는 동시에 향촌 사회의 주도권을 가져오려고 한 시도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중앙 정부가 의도한 신식 제도를 준행하는 일은 중앙의 권위를 이어받아 향촌 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길이었다. 때문에 세유층은 소학교의 설립에 적극 찬성하였다. 定平의 韓龍申 등은, 咸興, 德源, 北靑 3개 군이 이미 학교를 세워 선비를 기르고〔養士〕 있는 데 반해[81] 定平에는 아직 학교가 없음을 걱정하고 學部에 학교의 설립을 청원하기도 하였다.[82] 이처럼 함경도에서 소학교를 경쟁적으로 설립하려는 모습이 나타난 까닭은, 교임을 둘러싼 경쟁에서 밀리는 세유층이 향유층을 견제하고 자신들의 세력을 확대하기 위하여 중앙의 교육 정책을 적극 수용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세유층의 주도로 양사 기관이 함경도 내에 확산되고 있었던 기반 위에서 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함경도의 향촌 사회에서는 향유와 세유의 갈등이 격화됨에 따라 양사 기관이 확산되었고 양사 기관을 중심으로 향약·향례가 시행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갑오개혁으로 과거제가 폐지되었음에도 함경도 지역에서는 양사 기관이 확산되었다. 이는 함경도 내 양사 기관의 설립 목적이 과거 급제에만 있지는 않았음을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 향유층의 교임 침탈이 점차 거세짐에 따라 세유층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양사 기관을 설립하였다. 양사 기관은 향약과 향례를 시행하는 중심 공간으로 기능하였다. 세유층은 지역의 공동 활동을 활성화하여 향촌 사회에서의 영향력을 증대시키고자 하였다. 또한 이들은 확산되는 양사 기관을 기초로 삼아 공립소학교 설립에 찬성하였다. 이는 즉 새로운 교육 제도를 준행하여 향촌 주도권을 잡아 향유층의 교임 침탈로 인한 세력 약화를 극복하려 했던 의도에서 비롯된 일이었다.

---

80) 『皇城新聞』, 1901.11.21. "請移玉齋"

81) 建陽 元年(1896) 함경남도에는 咸鏡南道觀察府 咸興, 元山港(德源), 北靑郡에 공립소학교가 있었다(『官報』, 「學部令」, 第5號 地方公立小學校의 位置를 定하는 件, 建陽 元年 9月 21日 참조).

82) 『皇城新聞』, 1898.11.24. "設學敎民"

3. 한말 漢北興學會의 설립과 養士 機關의 변환

1) 儒鄕層의 연대와 '關北鄕飮酒禮' 시행

향유와 세유가 교임을 두고 충돌하는 일은 함경도 향촌 사회에서 큰 폐단으로 언급되곤 하였다. 그 속에서 세유층은 爲己之學을 위한 공간의 확보와 더불어 향촌 사회에서의 영향력을 키우기 위하여 양사 기관을 설립하였다. 이에 따라 양사 기관은 점차 확산되고 향약·향례가 널리 시행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갑오개혁 이후 신분제와 과거제의 폐지는 함경도 사회가 변화하는 데 강한 동인으로 작용하였다. 특히 新制에 포함된 '勿拘士民'의 문구는 함경도 사회에서 화두로 떠오르며 기존 향촌 질서를 더욱 흔들었다. 이 士와 民에 구애받지 말라는 말은, 인재의 등용과 직임의 차출 등에 널리 인용되며 기존의 질서를 재편하게 하는 動因이 되었다.

'勿拘士民'의 기치가 함경도 각지에 확산되면서, 직임 차출에 관한 인식은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기존 함경도에서는 才望이 있는 자를 향임으로 차출하고, 文藝가 우수한 자는 교임으로, 武藝에 뛰어난 자는 무임으로 차출하였다.[83] 향유와 세유가 교임을 두고 충돌할 때에도 위와 같은 직임 차출의 기준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즉 향임은 政務를 돕고, 교임의 경우 風敎를 이끌어가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함경도 민인의 기저인식이었다.[84] 그러나 이러한 인식은 '勿拘士民'으로 인해 흔들리기 시작하였다.

더구나 1896년 향촌 직임의 선발과 관련한 칙령이 내려지면서 향유와 세유 즉 유향층의 지위 유지에 관한 불안은 가속화되었다. 칙령의 내용은 각

---

83) 『鄕憲』 卷2.
"道內列郡 鄕人之有才望者 差出鄕長 優於文藝者 差出校長養監 嫺於射業者 差出訓廳首武"

84) 『鄕憲』 卷2.
"校長 所以首先風化者也 鄕任 所以佐理政務者也"

군의 鄕長을 선발함에 있어서 그 군의 구역 내 士民과 吏額을 勿拘하고 인망과 재주가 素著한 사람으로 군수가 선택하게 하였다. 그런데 군수에게 전권이 있는 것은 아니었고, 그 군의 大小人民이 회의 및 투표하여 공론을 따르는 형태로 선발하게 하였다. 다만 군에 입적 거주한지 7년 미만인 사람은 應選하지 못하게 하였다.[85] 이에 향촌의 직임을 將校와 庶儒輩 등이 침탈하는 일이 함경도 각지에서 일어났다.[86] 즉 이전 시기에 비해 향촌 직임의 수는 줄어들었는데 직임을 두고 유향층 이외에 쟁탈을 벌이는 주체가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러한 추세에서 이전의 양사 기관과는 다소 성격이 다른 조직체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1900년 慶源에서는 郡守 兪正憲과 鄕吏 李臣浩, 將校 柳昌箕를 중심으로 開化契와 開化堂이 설립되었다. 이와 관련한 기사가 황성신문에 실렸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경원군민 蔡瑞潤 등이 內部에 호소하기를 本郡守 兪正憲이 재임한 후에 奸鄕 李臣浩와 將校 柳昌箕 등이 때를 타고 모의하여〔乘時協謀〕, 郡會라 칭하고 章程 외에 任窠를 加設하고 징세 외에 民斂을 添排하고 경내에 포고하기를 開化의 세상에 어찌 班常이 있으리오. 우리 黨에 들어오는 사람이면 모두 수용하겠다 하니 며칠 만에 각 驛鎭卒・郡吏・奴令・僧退俗・奴免賊(賤)과 청나라와 러시아 경계에서 떠돌며 사는 백성들과 가까운 郡의 無賴之輩를 따르길 원하는 자가 1천여 인이라. 각 사람마다 30냥부터 300냥까지 수렴하여 수만 냥을 모았는데 이에 郡城의 남쪽에 都會하여 큰 연회를 열고 같은 마음으로 맹세한 연후에 스스로 그 당을 開化契라 하고, 이름들을 列書하니 이를 新鄕錄이라 하고, 그 무리를 이끌고 향청에 들어가 그 편액을 거니 開化堂이라 하며, 사사로이 향교를 훼손하고 향인을 가리켜 욕하매 저 守舊物들은 의당 모두 소탕해야 한다고 하고 대오를 만들어 횡행하여 만나는 사람마다 붙들고 輒打하니, 不過幾日에 반드시 큰 변고가 있으리니 本郡守는 免

85) 『內部請議書』 卷5, 「各府牧判任官以下任免規例에 關호 請議書」, 建陽 元年 8月 7日.

86) 『鄕憲』 卷2.
"而噫彼 將校 庶儒輩 全奪 訓廳首武 加設 掌議名色 又奪養監及鄕長之任"

官 및 새로이 차정하고 柳씨와 李씨 두 놈은 법률에 의해 엄히 다스려달라 하였더니 該部에서 郡守를 면관 조치하였다더라.[87]

여기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개화계에서는 ① 班常의 질서를 부정하였는데, 章程 외의 任窠를 늘리고 新鄕錄을 작성하였으며 ② 향청과 향교를 모두 훼손하였고 ③ 일반 병사나 천민, 승려, 심지어 청과 러시아로 흩어진 유민 등 신분을 막론하고 받아들였는데 그 수가 1천여 인에 이르렀다는 점이다.

반상의 질서를 부정함과 동시에 신향록을 작성했다는 것은, 곧 班層이 아닌 이들이 신향록에 등재되었음을 의미한다. 향청의 편액을 개화당으로 바꾸어 걸고, 향교를 사사로이 훼손하는 등의 일은 향유나 세유 등이 결코 동의할 수 없는 것이었다. 게다가 개화를 내세워 신분을 막론하고 조직에 모두 받아들여 집단 행동에 나선 것은, 기존의 향촌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임과 더불어 기득권층의 세력을 약화시키는 일이었다. 이러한 급진적인 변화는 중앙에서도 바라는 바가 아니었으므로, 개화계의 중심 인물이었던 慶源郡守 유정헌을 면관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러한 조직은 여타의 양사 기관처럼 이전 시기부터 지속된 유·향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창구 등으로 기능하는 것이 아니었다. 즉 새로운 사회 변동 주체가 함경도 향촌 사회에서 부상하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는 향촌 사회 내부의 이해관계와 갈등 양상이 점차 복잡하게 변화할 것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함경도 향촌 사회의 기존 질서가 흔들리자 함경도의 유·향, 즉 유향층은 불안감을 느끼고 그에 관한 해결책을 모색하였다. 즉 두 세력이 이전처럼 상호 경쟁하는 양상에서 벗어나 연대하여 의견을 합치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시작하였다. 이에 1900년 함경도 搢紳儒生 李果英 등은 상소를 올려 옛 제도로의 회복을 청하였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87) 『皇城新聞』, 1900.7.16. "開化故免官"

500년 동안 내려오던 법이 하루아침에 사라져 버렸다. 이는 실로 새로운 규정에 있는 '勿拘士民'하라는 내용과 연관이 있다. 이 밑천을 구실로 삼았지만, 士民 2자가 이에 향사·향민의 박학을 감당할 수 있는 자를 가리키는 줄 알지 못하고 各府와 各部에 거짓말로 호소하여 소란을 피우고 있다. 만약 지금 징계하지 않는다면 즉 무읍·무향에 이를 것이다. 저들이 구실로 삼는 단서라면, 勿拘士民이라는 네 글자뿐이다. 이에 감히 淸蹕之下에 소장을 올려 호소하고 천지부모에게 엎드려 빌 뿐이다.[88]

위의 상소 내용을 보면, 士와 民에 구애받지 말고 직임에 나아가는 일에 관하여 상당한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선 1896년의 칙령 등의 내용이 함경도 지역에서는 원활하게 적용이 잘 안 되었다는 의미와도 같다. 또한 상소문에서 '직임을 감당할 수 있는 士民'이라는 표현을 통해 그 자격 범위에 관한 세간의 오해가 심함을 밝혔다. 그러므로 차라리 '勿拘士民'의 표현을 삭제하여 혼란을 줄이자는 상소문을 올렸던 것이다. 그런 다음 다시 章程을 만들어 舊鄕의 儒武가 이전의 소임을 회복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하였다.[89]

이과영 등의 상소는 議政府贊政 內部大臣 李乾夏를 통해 올라가는데, 그는 '勿拘士民'이라는 내용은 새로운 지방 제도로 칙령을 통해 이미 하달되었으므로 이를 바꾸기는 어렵다고 하였다. 다만 이건하는 함경도 지역에서 태조고황제의 향헌목을 지켜온 지 500년이 되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巡校와 校生의 무리가 侵逼하려는 뜻을 엄히 금하도록 하는 節目을 만들어 보내자는 의견을 내었고, 이는 받아들여져 새로운 절목이 함경도 지역에 내려졌다.[90]

---

88) 『鄕憲』 卷2.
"國家五百年成憲一朝掃地實由於新章程中 勿拘士民 四字也 資爲口實 而不知士民二字 乃指鄕士鄕民之博學可堪者 誣訴府部紛拏駁雜百弊層生 若及今不懲 則至於無邑無鄕 乃已究其藉口之端 則勿拘士民 四字 而已玆敢陳章齊籲于淸蹕之下"

89) 『承政院日記』, 高宗 37年 4月 27日 戊戌.
"刪去勿拘士民四字 更成章程 俾此舊鄕之儒武 復其前業之意 亟降恩命 以副齊籲之忱云云"

90) 『承政院日記』, 高宗 37年 4月 27日 戊戌.

1902년에는 內藏院卿 李容翊을 필두로 한 148명의 대인원이 결집하여 다시 한 번 상소문을 작성하였다.[91] 상소의 내용은 앞선 1900년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咸興 소재 安陵의 參奉을 역임하였지만 중앙 정계에서는 무명에 가까운 이과영이 대표인으로 기재된 상소와,[92] 황실의 재정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던 이용익의 상소는 그 무게감이 서로 비교할 바가 아니었다. 이용익 등 148명의 상소가 올라오자 掌禮院에서는 1903년 2월에 함경도 지역에만 적용되는 9개 조항으로 된 절목을 特下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교・향임은 원래 향인이 아니면 절대 選用하지 말 것.
2. 都執憲은 일찍이 校長을 거친 文學才行者로 택정하여 매년 春秋에 마을의 자제들을 이끌고 향사당에서 향음주례 및 향사례를 행하며 명륜당에서 향헌 및 향약을 강론할 것. …
3. 鄕都監은 지역의 유망하고 재능이 있으며 총명한 자로 택정할 것. …
4. 교・향임은 公直하고 성실한 사람으로 택하여 圈點・特差하는데 관으로부터 擅斷하지 말고 面任은 즉 그 面會로부터 향중의 뛰어난 사람을 천거하여 鄕長에게 보고하고 稟官出帖할 것. …
5. 鄕長은 三十朔에 한해 郵遞事務者의 署理로 通信院에 급히 보고하고 임시 主事로 서임할 것.
6. 지역에 만약 공립소학교가 있으면 文學普通者로 하여금 학부에 보고하여 副校員으로 서임할 것.
7. 향중 자제 중에서 暗昧함이 있어 향안에 冒錄하는 淆亂名紀者는 영구히 削籍할 것.
8. 校生은 즉 聖廟를 수호하는 무리이다. 儒案에 冒錄하고 西儒라 호칭함이 있는 교임에 차정되기를 탐하는 자는 모두 아울러 축출하여 감히 자취를 남기지 못하게 할 것.

---

91) 1902년에 이용익과 더불어 상소를 올린 함경도 인사들의 명단은 현재 기록으로 남아있다. 이어지는 내용에서 언급하겠지만, 이 1902년에 상소를 올린 함경도의 인사들은 1903년의 『關北鄕飮酒禮』와 1906년의 한북흥학회에 참여한 인원과 일치하거나 간접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다수 존재하였다. 『鄕憲』에 등장하는 상소인 명단과 『關北鄕飮酒禮』, 한북흥학회의 參員 비교와 관련하여서는, 아래 〈附錄 1〉을 참조.

92) 『承政院日記』, 高宗 13年 1月 30日 壬戌.

9. 향원 중 前習을 고치지 않고 憲章을 가벼이 여기고 무시함이 있는 향중의 不得擅治者는 京約所에 통지하고 法司에 보고하여 법률에 의해 엄징할 것.[93]

위의 향헌 9개조가 함경도 지역에 특별히 내려지니, 구례의 회복을 위해 상소를 올렸던 유향층을 비롯한 함경도 지역의 여러 인사들은 이를 기념하기 위하여 서울의 咸鏡道京約所에서 향음주례를 베풀었다.[94] 이때 참여한 인사들의 명단과 더불어 각종 향음주례와 관련한 내용은 『관북향음주례』에 기록되어 있다. 『관북향음주례』는 1903년 6월 22일 이용익을 중심으로 한 관북의 주요 인사 등이 서울 소재의 경약소에 모여 향음주례를 행했던 사실을 기록한 책이다.[95] 이 책은 함경도경약소에서 편집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閔丙奭이 서문을 짓고 閔致憲·李容泰 등이 향음주례의 일원으로 참석한 내용 등을 통해 함경도 출신이 아닌 인사도 이에 관여하고 있었다.[96]

---

93) 『鄕憲』 卷2.
1. 校鄕任 原非鄕人 切勿選用事
2. 都執憲 以曾經校長文學才行者擇定 每歲春秋 率鄕子弟 行飮射于鄕射堂 講憲約于明倫堂 …
3. 鄕都監 有地望才諝者擇定 …
4. 校鄕任 另擇公直勤幹人圈點特差 自官亦勿擅便 面任則自該面會薦鄕中可堪人 報于鄕長稟官出帖 …
5. 鄕長 限三十朔 署理郵遞事務者 馳報于通信院 臨時主事敍任事
6. 該郡若有公立小學校 以文學普通者 報于學部 副敎員敍任事
7. 鄕子弟中如有暗自冒錄鄕案淆亂名紀者 永爲削籍事
8. 校生卽聖廟守護之徒也 如有冒錄儒案號稱西儒濫差校任者 一併逐出毋敢接迹事
9. 鄕員中如有不悛前習輕蔑憲章 自鄕中不得擅治者 通牒于京約所 齊稟于法司 依律痛懲事

94) 경약소가 구체적으로 어떤 곳인지에 관해서는 알려진 바가 많지 않다. 다만 함경도경약소와 유사한 명칭의 嶺南京約所가 어떠한 장소였는지를 살펴보면 대강의 사실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嶺南京約所節目冊』에 따르면 영남경약소는 영남 인사가 상경했을 때 이를 신고받고, 사법권을 행사하거나 변호하는 일을 돕는 장소였다. 조직 구성을 살펴보면, 서울에는 경약소가 있었고 영남 지역에는 郡과 面 단위에 각각 鄕約所와 面約所가 있었다. 그리고 面과 里에는 민인 교화의 목적으로 訓長 등이 두어졌다. 이에 비추어볼 때 이전 시기 京在所-留鄕所의 구조와 유사하게 지방별로 경약소를 두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李道學, 「嶺南京約所節目冊」, 『전통문화논총』 2, 2004 참조.

95) 『關北鄕飮酒禮』(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K1-110)

96) 민병석은 충청남도 懷德, 민치헌은 경기도 龍仁 출신이고, 이용태는 본적을 경

함경도경약소가 1903년 관북의 유력 인사들이 모여 향음주례를 행하였던 공간이었음을 고려한다면, 경약소는 서울에 위치한 지방 출신 인사들의 공동공간이었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97] 즉 서울에 위치한 함경도경약소는, 옛 京在所의 역할을 수행하며 함경도 지역의 향청조직과 협력하여 함경도 인사의 중앙 진출을 도모하는 구심점이었다.[98] 당시 함경도경약소의 중심인물은 明川 출신의 최고위급 관료 이용익이었고, 그를 필두로 하여 이전 시기의 지역 차별 등을 극복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어났을 것이다.

함경도경약소에서 편집・발행한 『관북향음주례』에서 가장 주목되는 점은, 향음주례에 참석한 총 198인의 명단이다.[99] 이 명단은 참석자의 직책, 성명, 출신지 혹은 거주지를 함께 기록하고 있어[100] 당대 함경도 유력 인사들의 구체적인 정보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명단에 수록된 함경도 인사 가운데 우선 주목할 만한 인물은 〈표 2〉와 같다.[101]

기도 安城에 두고 있었다.

97) 1907년 3월에는 許蔿를 중심으로 한 영남 인사들이 영남경약소에 대동흥학회를 설립하여 교육 진흥을 꾀하기도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皇城新聞』, 1907.3.21. "守舊學會" ; 『皇城新聞』, 1907.3.25. "隨聞更揭" 참조.

98) 위와 같은 경약소의 면모로 보았을 때 경약소는 都約所와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도약소 역시 향약의 시행을 주된 목적으로 삼아 설립되었다(『承政院日記』, 光武 2年 10月 28日 ; 『獨立新聞』 1898. 09. 17 "도약쇼경황" 참조). 도약소와 관련하여서는 서진교의 연구가 대표적인데, 서진교는 1894년 記功局으로 의정부에 소속된 忠勳府의 자리에 1898년 설립된 것으로 보이는 도약소에 주목하였다. 도약소는 을미의병과 아관파천 등으로 인한 유림의 상소운동과 관련이 깊었는데, 洪鍾宇가 중심이 된 建議疏廳과 관련이 있음을 논증하였다. 또한 도약소의 구성원은 주로 기호지역의 인사들이었는데 강원도 春川, 황해도 海州 등의 인사들도 참여하였음을 밝혔다(서진교, 「1898년 도약소의 결성과 활동」, 『진단학보』 73, 1992 참조).

99) 명단에 기재된 성명의 수는 모두 199인이나, 北靑 출신의 前主事 李允奎의 이름이 觀聽으로서 두 번 기재되어 있어 실제로는 198인인 것으로 짐작된다.

100) 함경도 출신의 인사가 아닌 경우 거주지인 京으로 표시했던 것으로 보인다.

101) 『관북향음주례』에 등장하는 인물의 전체 명단에 관해서는, 아래 〈부록 2〉를 참고.

< 표 2 > 光武 7年(1903) 7月‘關北鄕飮酒禮’叅員 명단

역할	직책	성명	출신지역
主人	內藏院卿	李容翊	明川
一賓	前郡守	張箕洽	永興
衆賓	泰川郡守	趙鼎允	長津
衆賓	度支出納局長	吳相奎	會寧
衆賓	平理院檢事	太明軾	明川
贊禮	前檢事	李儁	北靑
賓 贊引	前令	朱堣	咸興

우선 장기흡은 황해도 松禾의 郡守를 역임한 인물로서, 1907년 함경도의 국채보상운동을 이끌었고[102] 서북학회의 회장직을 맡아 교육사업을 수행한 인물이다.[103] 조정윤은 함경도에서 손꼽히는 巨富로 불리는 이였는데 長津의 빈민을 구제하고[104] 국민교육회에 찬성금을 희사하였으며[105] 서북학회에도 거금을 내어 발전을 도모하는 등 자신이 갖고 있는 재산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한 인물이었다.[106] 오상규는 1906년 이동휘와 한북흥학회를 함께 설립하였는데, 두 사람은 비슷한 시기에 강화도에서 교육 사업을 활발히 진행한 바 있다.[107] 또한 국민교육회에 찬성금을 내기도 하였다.[108] 태명식은 평리원검사를 지내고 私立漢城法學校의 講師職을 맡기도 한 인물인데,[109] 조정윤・오상규와 마찬가지로 국민교육회에 찬성금을 낸 사실이 있다.[110] 또한 한성의 여성학교인 養閨義塾에 보조금을 내기도 하였다.[111] 이준은 국민교육회의 회장을 역임하였으며,[112] 한북흥학회의 發

102)『皇城新聞』, 1907.3.15.“漢北國債報償團成會趣旨書”
“發起人 朴有豐 張基洽 金演祐 康容九 金器宋 金鉉默 朴景準 金容默 姜鳳植 全冕鎬”
103)『皇城新聞』, 1908.9.23.“永興學界消息”
104)『皇城新聞』, 1903.6.18.“義捐活民”
105)『皇城新聞』, 1905.10.30.“國民敎育會贊成金人員”,
106)『皇城新聞』, 1908.4.11.“必有心腸”;『共立新報』1908.5.6.
107)『皇城新聞』. 1905.6.13.“江華府私立普昌學校贊成續”
108)『皇城新聞』, 1905.10.19.“國民敎育會贊成金人”
109)『皇城新聞』, 1905.1.16.“學員募集廣告”
110)『皇城新聞』, 1905.10.26.“國民敎育會贊成金人員”
111)『大韓每日申報』, 1906.6.19.“養閨義塾 補助秩”

起人으로도 참여한 인물이다.[113] 주우는 한북흥학회의 창립 당시 부회장을 맡은 바 있고,[114] 자신의 고향인 咸興에 있는 豐興學校를 지역 유지들과 함께 크게 확장하기도 하였다.[115] 이러한 함경도 출신의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여한 관북향음주례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함경도 향촌 사회의 직임 기강을 다시 세운 일을 도내 각지의 주요 인사가 모여 기념하는 자리와도 같았다.

관북향음주례가 열린 이후, 함경도 각 지역에서는 중앙에서 特下된 향헌을 시행하려고 하였다. 부령에서는 지방관에 의해 계를 조직하여 향약을 권면하니 藍田의 풍속을 復覩하겠다는 보고가 중앙에 전달되었다.[116] 端川의 유·향은 신구 유·향의 성명을 모두 적은 鄕案을 만들어 상호 갈등을 봉합하고 서로 결집하는 모습을 보였다.[117] 그 향안에는 4천여 명이나 되는 유·향들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었다.[118] 이에 신기선은 향임과 교임에 있어서 각자의 소임을 다하고 다투지 말 것을 당부하는 한편,[119] 端川鄕案 내에 많은 유·향들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들이 모두 한마음일 것이라 기대하는 理想에 기대지 말고 군수와 首席儒鄕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기틀을 마련

---

112) 『皇城新聞』, 1906.5.5, "雜誌請刊"
113) 『大韓每日申報』, 1906.10.30. "흔北학會發起"
114) 『大韓每日申報』, 1906.11.6. "漢北學會第一回"
115) 『大韓每日申報』, 1907.3.21. "咸校蔚興"
116) 『皇城新聞』, 1903.11.11. "咸鏡北道管下府尹郡守治績"
"富寧 高升若 使饒戶而出義濟飢ᄒᆞ니 擧擬麥舟之惠ᄒᆞ고 捐薄廩而勸約設禊ᄒᆞ니 復覩藍田之風이오며"
117) 端川에서는 1904년에 이르기까지 향촌 직임과 관련하여 여러 갈등이 발생하고 있었다. 端川의 신향 許基·金成文 등은 청원서를 올려 이를 해소해달라고 청하였는데 이에 의정부에서 직임을 유·향이 번갈아 차임하라는 훈령이 내려지기도 하였다(『起案』 卷9, 「訓令」 第71號, 光武 8年 7月 9日). 그러나 이전에도 비슷한 훈령이 내려졌으나 준행이 되지 않았다는 점을 통해 볼 때, 훈령 자체만으로는 端川 유·향의 갈등을 봉합하는 데 큰 역할을 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118) 『陽園遺集』「端川鄕案序」.
"旣而郡人盡錄新舊儒鄕姓名 編成二冊 題曰端川鄕案 … 今閱端郡儒鄕之案 其人殆四千餘矣"
119) 『陽園遺集』「端川鄕案序」.
"今旣合三四而爲一帖 然無事乎爭競 則儒而治儒之業 鄕而盡鄕之務 此其時矣"

하라고 하였다.[120]

관북향음주례는 유·향간 상호 협력의 중요성을 함경도 유향층에게 알리는 일이었다. 즉 함경도의 유향층은 향촌 사회의 질서가 예전 같지 않음을 느끼고 舊例의 회복을 바라는 상소를 꾸준히 올렸는데, 이용익 등 148인의 함경도 인사가 연명한 상소가 실제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관북 이외의 지역에서는 비슷한 시도를 찾기 어려운 집단행동이었다. 이후 이어지는 국난의 시기를 맞아 함경도 유향층은 내부 결속을 바탕으로 함경도의 일반 민인을 아우르는 쪽으로 강력한 결집력을 발휘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 유향층의 결집과 더불어 연명 상소를 통해 실제 성과를 얻어내었던 경험은, 이후 그들이 향촌 사회에서 이전보다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끔 하는 단초가 되었을 것이다.

2) 漢北興學會와 新舊折衷 교육론

鄕憲의 회복을 바랐던 함경도 출신 유력 인사들의 상소는, 지역 차별의 타파 및 중앙 정계로의 진출과 더불어 복잡해진 향촌 사회의 갈등을 유향층을 중심으로 해소하기 위해 비롯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향헌의 特下에 이은 관북향음주례는 함경도 유·향이 한데 모여 뜻을 같이 하는 장을 마련하였고, 상호 갈등 국면을 벗어나 협력의 관계로 나아가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처음 함경도의 유향층이 뜻을 모으게 된 계기는 함경도 사회 내부의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1904년 한일의정서가 체결되는 등의 국난을 맞아 함경도의 유향층을 비롯한 전체 민인은 위기의식을 크게 느끼고 이를 교육으로 타개하고자 하였다. 1904년 9월 전국적인 호응을 불러온 國民

120) 『陽園遺集』「端川鄕案序」.
"欲使四千人心同 此非四千人事 其機乃係於幾個人 余不能無望於郡守及首席儒鄕也 … 但錄四千人姓名 謂是端川之儒鄕也 顧安用哉"

教育會의 설립에는 한북흥학회의 발기인이기도 한 이준과 兪鎭浩 등이 직접 참여하였다.[121] 이동휘 등 함경도의 다른 인사들도 국민교육회의 취지에 동참하여 기부금을 내는 등 여러 활동을 지속하였다. 이와 더불어 大韓自强會 역시 활발한 교육구국운동을 펼쳤는데, 여기에는 薛泰熙, 태명식, 이동휘 등의 인사가 참여하여 활동을 이어갔다.[122]

이를 기반으로 1906년 10월 함경도 지역을 중심으로 한 한북흥학회가 설립되었다. 한북흥학회를 發起한 장소는 이전 관북향음주례를 실시하였던 함경도경약소였다. 함경도경약소는 영남경약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함경도 인사가 상경하였을 때 성명과 숙소 등을 신고 받고 그에 관한 표를 발급하는 일을 담당하였을 것이다. 이처럼 함경도경약소가 서울 내 함경도 인사의 전체 명단을 상시 관리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관리체계를 수단으로 하여 함경도 인사들이 상호 연락을 원활히 할 수 있었다. 한북흥학회의 설립이 함경도경약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영남 지역을 대표하는 교육회로 경약소가 언급된 기사가 실리기도 하였다.[123] 이는 경약소가 가진 인적 네트워크가 교육 조직 등으로 발전하기 용이하였던 정황을 보여주고 있다. 즉 경약소는 각 지역에 흩어져있는 유향층의 여론을 집약시켜 중앙에 전달하는 창구이자 시대적 과제였던 교육회 등의 계몽단체 결성의 중간 고리 역할을 하였다. 1906년 10월 29일 발기인 오상규, 이준, 유진호, 설태희와 회원 70여 인이 모여 함경도경약소를 학회 사무소로 정하는 등 실무를 논의하였고, 이준과 설태희는 학회 취지 및 규칙에 관해 회원들에게 설명하였다.[124]

한북흥학회는 설립 취지문에서 함경도 지역이 岐邠과 豐沛의 땅임을 강조하면서, 民智의 발달을 이루기 위해 학회를 세우고 함경도의 청년자제들을

---

121) 전술한 것처럼, 이준은 국민교육회장을 역임하기도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皇城新聞』, 1906.5.5. "雜誌請刊" 참조.

122) 李松姬, 「韓末 漢北興學會의 組織과 活動에 關한 考察」, 『梨花史學硏究』 15, 1984, 34~35쪽.

123) 『皇城新聞』, 1907.7.13. "湖西學會趣旨書"

124) 『大韓每日申報』, 1906.10.30. "흔北학會發起" ; 『皇城新聞』, 1906.10.30. "漢北興學會"

교육하여 외국과 서울에 나아가는 일도 편리하게끔 하자는 목표를 천명하였다.[125] 나아가 관북이 전국의 교육을 선도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하자는 포부를 함께 드러내었다.[126] 즉 한북흥학회는 몇몇 뜻있는 인사가 모여 만든 소규모의 조직이 아니었다. 관북향음주례 등을 통해 쌓인 관계를 적극 활용하여 해외나 서울로의 유학생 지원도 학회 활동으로 계획하는 등 활동의 폭이 넓었고, 후일 다른 지역의 학회 설립 취지문에서도 자주 언급되는 도 단위의 거대 교육 조직이었다.[127]

한북흥학회가 설립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학회의 인사들은 함경도의 교육 확장을 목표로 한북흥학회관이 있는 함경도경약소에 부속으로 漢北義塾을 설립하여 학회 자체적으로 교사를 양성하고자 하였다. 즉 민립 사범학교였던 한북의숙의 설립은 한북흥학회의 총무원이었던 설태희가 건의한 의안으로부터 본격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우리 학회의 主旨는 즉 一省 內 교육인즉 教育教育이여 尙屬 空言에 奈何오 혹 재물의 未辦이라하며 또 말하길 열심권면이 없는 자라 하여늘 脫有兩件俱備라도 오히려 不無最可缺點者는 何也오 교사의 재목 이뿐이라. 그 소이로 教師材之謂는 즉 신식 교육 방법이니 若不如是면 依樣胡蘆에 前日의 咿嗷黃卷이 何益於事哉아. 소이로 本員之計는 莫如設塾于中央而使之附屬本會하고 각 군의 스승이 될 만한 연령의 준수자를 불러 먼저 속성으로 죽을 힘을 다해 권학하여 1년 기한 졸업 후 因送本郡教授면 省內 교육의 확장이 必如水就下矣리니 어찌 汲汲한 방책이 아니겠는가. 施實 방침을 左開臚陳하오니 査照採議하심을 伏望.
>
> 光武10年 12月 8日.
>
> 1. 本校의 명칭 여하는 不拘하고 과목은 사범학으로 編之하되 교사는 우선 1명만 延聘ᄒᆞ고 생도는 方在京中會員中으로 모집하며 待其地方生徒

125) 이준은 유년시절 상경하여 학업을 이어가려 하였던 과정이 순탄하지 않았던 경험을 갖고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韋庵文稿』卷6,「李儁傳」참조.

126)『大韓每日申報』, 1906.10.30. “漢北興학會趣旨”;『皇城新聞』, 1906.11.1. “漢北興學會趣旨”

127) 1907년 호서학회의 취지서를 보면, 전국 각 지역의 학회를 소개하고 이에 뒤처지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관서의 서우학회와 관북의 한북흥학회를 먼저 언급하고 있다(『皇城新聞』, 1907.7.13. “湖西學會趣旨書” 참조). 이는 두 학회의 선구적인 위치를 짐작케 한다.

來到하야 隨宜叟議할 事.

2. 이와 같이 함에는 의무교육제의 담임이아니면 불가하니 道內에 의무교육을 실시하되 우선 來京生徒의 여비는 각 그 군 중 의무로 辦債케 할 事.
3. 신문잡지가 사회교육에는 莫過之必要오니 특히 황성신문은 본회로 揶扱하야 각 군에 廣布하면 守舊者의 迷想을 開牖함과 학도부형의 교육심을 導出케하는데 大有効力이오. 또 一邊으로 본회의 발전을 협찬하야 신문상으로 지방에 맥락을 상통케 할 事이더라.[128]

한북의숙의 설립 의안과 관련한 위 기사가 나온 후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한북의숙 學員을 모집하는 광고가 신문에 실렸다.[129] 기사가 실리기 이전부터 어느 정도 의숙의 설립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었거나, 혹은 학회의 인사가 일치단결하여 위 의안의 타결과 실행이 급속하게 이루어진 상황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학원 모집 기사에서 먼저 주목해야 할 점은 한북의숙의 입학 요건이다. 여타 사범학교의 입학 연령 제한을 살펴보면, 국민교육회의 경우 25세에서 35세까지,[130] 서우학회에서는 25세에서 40세까지의 연령 제한을 두었다.[131] 그런데 한북흥학회에서는 22세부터 40세까지로, 당시 주요한 민립 사범학교 중에서는 입학 가능 연령의 폭이 넓은 편이었다.[132] 이는 한북의숙이 1년 기한의 속성 교육으로 지역 내 敎授者를 가능한 한 많이 배출하려는 목표를 세우고 있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또한 입학 시험 내용으로는 『中庸』, 『大學』, 『論語』, 『孟子』 등의 讀書와 더불어 國漢文의 作文, 그리고 기초 算術 등이 있었다. 교수자를 양성하는 학교의 시험에 『논어』와 『맹자』 등의 漢學 내용이 여럿 등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당시 함경도의 여러 교육 기관에서는 舊學이라 할 수 있는

128) 『皇城新聞』, 1906.12.24. "興學議案"
129) 『皇城新聞』, 1906.12.29. "漢北義塾學員募集廣告"
130) 『皇城新聞』, 1905.10.19. "本會에셔 國民의 智識發達키 爲하야 師範學校를 爲先設立ᄒᆞ고"
131) 『皇城新聞』, 1906.12.25. "西友設校" ; 『大韓每日申報』, 1906.12.25. "西友設校"
132) 당시의 민립 사범학교의 설립과 교과 교육에 관련하여서는, 金孝貞, 「韓末 民立 師範學校의 設立과 敎育救國運動」,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참조.

한학을 중요하게 여겼다. 앞서 언급한 한회선 등이 세운 경학재는 1906년에 이르러서도 유지되어 "한학교육의 고등학교"라는 평을 듣기도 하였는데,[133] 咸興 지역에는 이와 같은 큰 규모의 양사재가 여럿 존재하였다.[134] 또한 官·公·私立學校의 高等·小學 졸업증서가 있는 자는 시험을 면제하였다. 이는 한학 등의 소양을 기르기 위한 교육 기관이 널리 존재하고 있었으며, 해당 기관 졸업자들의 역량을 학회 인사들이 신뢰하고 있었음을 방증하는 부분이다.

이처럼 한학은 한북흥학회의 교육 지향에서 중요한 요소였다. 한학을 주된 교육 내용을 삼았던 양사 기관이 함경도 각지에서 지역 교육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永興 順寧社 柳南里에는 貞忠齋가 있었는데, 신기선은 1905년 이곳 儒林案의 서문을 지어주었다. 서문에서 그는 당시의 급박한 정세에서도 옛 齋院에서 옛 서적을 강론하고 토의하는 일이 많았으나, 이는 炳義와 大節을 숭상하고 논한다는 의미가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135] 祠宇에는 양사재가 함께 있어서 그곳에서 諸生이 講習하기도 하였다.[136] 洪原의 慕義齋는 비교적 가까운 시기에 있었던 지역의 義人을 기리기 위해 설립되었다. 1839년에 洪原에서 흉년이 들었을 때 10여만 냥에 달하였던 欠稅의 부담을 僉使 廉榮甲과 士人 金性珏이 경감시킨 일이 있었다.[137] 이로부터 60여 년이 지난 후 洪原의 민인들이 의논하여 그들을

---

133) 신기선도 1905년에 경학재의 記文을 썼는데, 이곳에서 학문을 익히는 것을 날실과 씨실로 布帛을 짓는 일에 비유하여 경학에만 지나치게 몰두하지는 말 것을 주문하였다(『陽園遺集』「經學齋記」 참조).

134) 『皇城新聞』, 1906.12.31. "咸鏡南道槪況"
"漢學敎育의 高等學校라 稱홀 者가 城內에ᄂᆞᆫ 育英校가 有ᄒᆞ고 城外北方十里許에 龍山齋가 有ᄒᆞ며 西方十里許에 經學齋가 有ᄒᆞ니 皆數十名의 書生을 募集ᄒᆞ야 舊式으로 敎育ᄒᆞᄂᆞ니라"

135) 『陽園遺集』 卷8, 「貞忠齋儒林案序」.
"滔滔斯世 不趍他岐 而尋向舊齋院 講討舊書籍者 豈其多得哉 諸生講書於是齋則必將尙論剛烈公之炳義大節而思所企及"

136) 北靑의 享德祠에는 朱熹와 宋時烈의 초상을 모시는 祠가 있었고, 그 아래에는 齋가 있었는데 그곳은 諸生이 講習하는 공간이었다(『陽園遺集』 卷10, 「享德祠記」 참조).

137) 『陽園遺集』 卷8, 「慕義齋案序」.
"洪原之郡 古有僉使廉榮甲士人金性珏 豪傑之士也 … 竟蠲十餘萬兩之欠稅"

기리는 사우를 세웠다. 여기서도 독서와 강론을 중심으로 교육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졌다.[138]

양사계는 한학과 관련하여 많은 종류가 있었다. 北靑의 管城契처럼 붓과 먹 등 文房四友에 관한 계가 있었으며,[139] 자신의 스승을 높이는 계가 그 문하생을 중심으로 설립되기도 하였다.[140] 정배되어 온 인사에게 학문을 배우다가,[141] 그 스승이 돌아갈 때가 되자 서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는 계를 설립하기도 하였다.[142]

그러나 양사계 설립의 주요한 목적은 역시 강학이었다.[143] 咸興 각 社에는 양사계가 있었지만 유독 산이 있는 외진 곳에는 계가 없었다.[144] 東加平社가 바로 그런 곳이었는데, 都鎭三은 지역의 父老에게 교육의 중요성을 설파하여 양사계를 설립하였다. 그는 일찍이 과거에 급제한 바 있는데 都市의 어지러운 소리를 싫어하여 山谷에 들어가 농사지으며 아이들을 가르쳤다.[145] 또한 舊業을 익히고 앞서 언급한 양사계를 설립하여 후진을 이끌었다.[146]

이렇듯 양사 기관이 함경도 곳곳에서 뿌리내리고 있었으므로 한북흥학회

---

138) 『陽園遺集』 卷8, 「慕義齋案序」.
"事在六十年以前 而洪之人至今不忘 乃謀建齋而祠二君 因以讀書講道於齋中 議既定"

139) 『陽園遺集』 卷8, 「管城契序」.

140) 『陽園遺集』 卷8, 「隆道契序」.

141) 신기선의 조카뻘인 申載永은 1888년부터 1894년까지 6년여 간 高原에서 유배 생활을 하였다(『承政院日記』 高宗 25年 7月 8日 戊午 ; 高宗 31年 7月 18日 壬辰). 그가 高原에 있을 때 지역의 선비들이 찾아와 가르침을 구하였는데, 그중 어윤중의 일족인 魚正國과 막역하게 지내었다(『陽園遺集』 卷8, 「永信契序」 참조).

142) 『陽園遺集』 卷8, 「永信契序」.
"殖財而爲候問之禮 定會而談契濶之懷 名其契曰永信"

143) 『陽園遺集』 卷8, 「崇仁契序」.
"然則是契也 不可但以蘋藻牲醴爲務 當以講學爲先"

144) 『陽園遺集』 卷8, 「東加平社養士契序」.
"咸郡各社之所謂養士契者是也 蓋有是社則必有是契 而其或無之者 山社之最僻處也"

145) 『承政院日記』 高宗 28年 5月 8日 辛未.

146) 『陽園遺集』 卷8, 「東加平社養士契序」.
"厭都市之紛囂 入山谷之深窈 課農敎兒 溫習舊業 而又爲創契於一社 牖導後生"

의 교육 지향에서 한학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그러나 함경도의 주요 인사들은 국난의 위기에 봉착하여 한학의 교육만으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고 여겼다. 이와 관련하여 한북흥학회 설립의 주역으로 근대개혁기 함경도 교육계에서 활발히 활동하였던 오상규는 그의 문집에서 학문의 양쪽 날개에 관해 말하였다.

> 한문을 多讀하는 것은 성현의 도덕으로써 마음을 삼는 것이고 기타 利用의 術은 新智를 확충하는 것인데 각기 적당하고 그 의당함을 각각 적절히 한다면 무엇을 하지 못하겠는가? 新學을 간략히 배우고 道德이 없는 것은 즉 반드시 君子를 이루지 못함이라. 신지를 알지 못하고 단지 舊學을 읽는 것은 野人을 면하지 못한다. 한문으로써 道의 그릇을 삼고 신지로써 이로움의 그릇을 삼으면 즉 가히 새의 양쪽 날개와 같은 것이고 수레의 양쪽 바퀴와 같다고 말할 수 있다. 그 각각을 改悟하여 그것을 힘써야 한다.[147]

위에서 보이듯이 그는 군자와 야인을 대비시키면서, 舊學과 新學 중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있게 배워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즉 漢學을 道器로 삼고 新智를 利器로 삼아 모두를 힘써 익혀야 한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그가 新舊折衷의 관점을 지향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148] 다른 많은 함경도 인사들 역시 이와 유사한 관점을 갖고 있었다. 한북흥학회에서 설태희가 아래와 같이 연설한 내용을 보면, 신구절충 인식이 함경도 인사들의 교육론과 닿아있었음을 살필 수 있다.

> … 무릇 학문이란 것은 우주 간 천연한 원소가 아니오 오직 사람의 사상

---

147) 『槐庭雜誌』, 「論學界」.
"多讀漢文 以聖賢之道德爲心 而其他利用之術 擴充新智 各適其宜則何所不爲也 略學新學 而無道德 則必不成君子也 不識新智 而但讀舊學者 未免野人也 以漢文爲道器 以新智爲利器 則可謂如鳥雙翼如車兩輪 其各改悟而勉之"

148) 新舊折衷과 東道西器는 그 표현에서도 알 수 있듯 의미의 차이가 존재한다. 동도서기에서는 道와 器를 분리하여 東道/西道, 東器/西器의 우열을 가렸으나, 신구절충은 道와 器를 一元으로 파악하고 정신과 물질의 상호보완을 추구한다(柳永烈, 『大韓帝國期의 民族運動』, 一潮閣, 1997, 174쪽 참조).

으로 결과된 언어니 이 자취 없는 언어로는 내세를 교도할 수 없어 각 문자 조작이 되었으니 이는 그 학문이 성립된 것으로 말미암은 바의 원시이다. 연즉 인문 사물이 중세는 상세보다 적게 번화하고 금세는 중세보다 심히 광대함이 이는 유치로 장성에 이름과 같이 자연 진화의 원리니 학문의 팽장함도 옛날의 다섯 수레 책을 말할진대 지금은 오만 수레의 책이라 하겠소.

이와 같은 명확한 태도를 불각하고 수천년전 제작한 제도문물과 정치학술을 하늘이 정한 符書로 아니, 그 불통함과 우치함은 拘儒俗士라는 비방을 면하지 못하리로다. 이에 따라 鄰族의 접촉경쟁에 낙하함이 반드시 그러한 사실인 즉 그 이해가 어찌 같으리오. 이 낙하를 상언할진대 인종도 멸하고 강토의 판도도 변개됨을 말함이니 어찌 한심치 아니하리오 … 이 모두는 사람의 이로움만 위하여 우리는 사람에 목적물이 되고 대륙 침륜의 어려움을 당해서도 오히려 몽몽하여 자해를 불각하니 과연 이상한 일이오. 排外思想이 선비의 원기인줄만 생각하지 말고 신선한 문명공기를 흡취하시오.

지금 이 이해의 판별은 외국학문만 취하고 본국학문을 버리란 것은 아니오. … 오직 일도덕을 말하더라도 신학문을 연구하여 고서보다 尤精尤妙하게 강습할 수도 있소. 바라노니 우리 일반 회원은 옛것에만 머리를 조아리지 말고 우리의 사상을 스스로 연구하면 時官에 적당하게 하여 舜何人이며 吾何人句語를 기억하시오. 갈포의 옷은 여름에 쓰고 毬氈의 屬은 겨울에 적당하니 이를 不適하면 이해를 판별하기 어려워 자진자멸의 환을 면하기 어렵겠소.[149]

설태희는 본국의 학문과 더불어 외국 학문을 취하여 그 깊이를 풍부하게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排外思想을 선비의 영역으로만 생각하지 말라고도 언급하였다. 이를 통해 당시 연설장에 주로 참여하고 있었을 유향층과 더불어 일반의 함경도 민인에게, 신학과 구학의 균형 즉 신구절충의 중요성을 전달하고자 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함경도 관원들도 지방 행정을 운영하면서 그러한 지향과 궤를 같이 하는 경우가 많았다. 신기선은 학교의 의미에 관해 언급하면서, 학교는 백성을 교화하고 동시에 국가를 부강하게 하는 유일한 것이라 평하였다.[150] 그러

149) 『皇城新聞』, 1906.11.9. "漢北興學會演說"

150) 『陽園遺集』 卷8, 「文化契序」.
"使斯民遠於禽獸而致比屋可封之化者 惟曰學校 挽近世界各國 … 蔚然致富强之效者 亦惟曰學校"

면서 지금의 학교는 옛날의 학교와 비교해보았을 때 서로가 비슷하다고 하였다.[151] 지금의 학교는 이용후생을 主로 삼지만 正德에 어그러지지 않고, 옛날의 학교는 정덕을 주로 삼으나 이용후생이 그 가운데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였다.[152] 학교의 설립은 대개 장차 백성을 교육하여 정덕에 권면하게 하고, 이용후생에 힘주어 강론하여 사람에게 恒心·恒業이 있게끔 하려는 것이니, 국가가 이에 유지된다고 하였다.[153]

신기선은 교육이 갖고 있는 가치가 굉장히 크지만 이를 안정적으로 진흥시키기 위해서는 민인이 일정 수준의 부를 갖고 있어야 함을 역설하였다.[154] 이에 咸興의 主事 金勉弼과 더불어 種育會를 세웠는데,[155] 종육회의 좌목 서문에서도 歐美의 예를 들며 正德과 利用, 厚生을 나누어 강조하였다. 또한 귀천과 남녀 모두를 빠뜨리지 않고 塾에 들여보내는 일을 중히 여겼다.[156] 그리고 이 종육회에는 咸興 出身廳의 재원을 보태었다.[157] 즉 무임과 관련한 기관 역시 지역의 교육 진흥을 위한 일익을 담당하였음을 알 수 있다. 咸興 종육회의 사례에서, 함경도 관원이 지역의 재원을 활용하여 恒心을 위한 恒産의 신장을 도모하는 한편 신분과 성별을 가리지 않는 보편교육을 지향하였던 모습을 살필 수 있다. 이러한 신구절충에 입각한 보편교육론은 한북흥학회의 주요 인사 역시 공감하는 바였을 것이다.

함경도에는 보편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공간이 널리 존재하였다.[158] 함

---

151) 『陽園遺集』 卷8, 「文化契序」.
"今之學校 與古之學校 有所不同乎 曰不然"

152) 『陽園遺集』 卷8, 「文化契序」.
"古之學校 主於正德而利用厚生包在其中 今之學校 主於利用厚生而亦不悖於正德"

153) 『陽園遺集』 卷8, 「文化契序」.
"朝家之所以創立中外學校 蓋將敎育斯民 使之實勉於正德 而力講乎利用厚生 人有恒心恒業而國賴以維持也"

154) 『陽園遺集』 卷8, 「咸興郡種育會座目序」.
"敎育亦不可以徒手而辦 庠塾之結搆 師生之餼料 書籍文房之具 並皆須財而備 此亦民富然後事也 欲使民富"

155) 『陽園遺集』 卷8, 「留別金主事勉弼序」.

156) 『陽園遺集』 卷8, 「咸興郡種育會座目序」.
"乃者歐美諸國學校之政 日新月盛 其敎之本末模範 雖異於東亞學規 要之正德利用厚生三者 大槩暗合 而無闕 貴賤男女 有生之類 無不入塾"

157) 『陽園遺集』 卷8, 「出身廳種育規則序」.

경도의 府나 郡 단위에는 庠이 있었고, 社나 里에는 塾이 있었다.[159] 신기선은 관찰사 재임 당시 安邊 지역의 준재들이 독서를 좋아하고 촌에는 모두 塾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뻐하였는데,[160] 함경도 민인들이 社와 里에 塾을 설립하여 교육에 힘쓰는 일은 기호지방에 비해 더 낫다고까지 하였다.[161] 교육 공간이 많은 만큼 스승이 되는 자도 역시 많았는데, 그들 중 다수는 학식이 높은 편은 아니었다.[162] 이러한 庠塾이 지역마다 두루 있는 것은 함경도의 좋은 풍속이라 하였다.[163]

함경도 각지에 있었던 유향층의 사상적 기반은 유학을 위시한 漢學이었고, 이들이 중심이 되었던 양사 기관에서는 주로 한학 교육을 실시하였다. 그러던 중 국난의 시기를 맞아 변화를 꾀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자, 구학과 신학의 상호보완을 강조하는 신구절충 교육론이 함경도 교육계에 대두하였고 이는 점차 보편교육론으로 확장되어 함경도 민인 일반에게 확산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국망의 위기에 이르러서도 지속되었다.

---

158) 교육 공간을 새로 마련하기 위해서는 재원이 있다 하더라도 건축 자재나 노동력을 구하는 문제는 쉽게 해결할 수 없었다. 그러한 일은 지역 전체의 관심과 노력이 투입되어야 했다. 때문에 각종 교육 활동은 기존의 양사재와 같은 공간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159) 『陽園遺集』 卷8, 「咸興郡種育會座目序」.
"府郡庠社里塾應行節目 俱有訓案 此不復贅"

160) 『陽園遺集』 卷8, 「送宗人杓序」.
"其秀俊者喜讀書 村皆有塾"

161) 『陽園遺集』 卷8, 「東加平社養士契序」.
"社里之間 設塾訓蒙鳩材資業之勤 反有優於畿湖"

162) 『陽園遺集』 卷8, 「隆道契序」.
"咸山之鄉 無村無塾 無塾無師 爲師者指不勝屈 而求其能不錯句讀者亦鮮矣"

163) 『陽園遺集』 卷8, 「龍川齋契序」.
"庠塾之殆遍社里 北土之美俗也 建齋者將以讀書也 讀書者將以學爲人之道也"

3) 養士 機關의 변환과 新式 학교 설립

함경도의 각 지역에는 書堂이나 書塾, 書齋, 鄕校, 小學校 등의 다양한 교육 시설이 자리하고 있었다. 을사늑약 전후 국난을 교육으로 극복해야 한다는 사상이 사회 전반에 대두하고 큰 규모의 교육 조직이 본격적으로 설립되기 시작하면서 '학교'를 설립하려는 노력이 크게 일어났다. 함경도에서도 한북흥학회와 그 인사들은 각 지역의 민인들과 더불어 교육을 진흥하기 위해 힘썼다.

이 절에서 주로 다루고자 하는 '학교'는, 家塾이나 私齋와 같이 교육 활동의 주체가 소수로 제한되었던 공간을 넘어, 기존의 서당이나 소학교처럼 불특정다수의 지역 민인이 주체가 되어 교육에 참여하는 등 공공성을 띤 공간을 의미한다. 양사 기관은 전자에 가까웠는데, 한북흥학회가 설립되는 시점부터 후자인 '학교'로의 변환이 본격화되었다. 물론 高原, 洪原, 長津 등의 지역에서는 공립소학교의 설립을 위해 양사 기관의 재산을 활용했던 모습이 일찍부터 나타났지만,[164] 변환 속도는 한북흥학회의 설립 시점과 맞물려 빨라지기 시작하였다.

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그 뜻을 가진 인사가 있어야 한다. 함경도의 주요 인사는 한북흥학회를 통해 교육 진흥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다. 함경도의 유·향 혹은 무임층이 한북흥학회의 임원으로 다수 포진하였고, 학회 설립 이전에도 서로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은 전술한 바와 같다. 이들은 각자 자신의 출신 지역을 중심으로 그 민인을 독려하여 학교를 설립하거나 학원을 모집하는 등 교육을 장려하였다. 함경도의 지방관 역시 지역의 교육 진흥을 위해 힘썼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교육 공간의 확보는 신축의 방향보다는 기존의 건물을 활용하여 해결하는 경향이 강하였다. 새로운 건물을 건축하는 일은 민인 모두에게 부담이 컸다. 건축에 필요한 자재를 구하는 것에서부터 시공

164) 鄭崇敎, 「대한제국기 지방학교의 설립주체와 재정」, 『한국문화』 22, 1998, 291쪽.

노동자를 구하는 일까지 상당한 비용과 많은 절차가 요구되었다.[165] 그리하여 학교와 같은 교육 기관을 설립함에 있어 처음부터 새로운 건축물을 교육 공간으로 삼는 경우는, 지역을 대표할 만한 큰 규모의 학교를 제외하고는 많지 않았다. 대신 해당 지역의 書堂이나 書齋를 매입하거나 기부 받는 등의 형태로 공간을 확보하거나,[166] 기존 학교가 이사 가고 남은 기반을 활용하기도 하였으며,[167] 개인의 家舍에 기반을 두어 학교를 세운 경우도 종종 있었다.[168] 따라서 함경도 민인은 이러한 교육 공간을 바탕으로 재원을 모아 학교를 설립하였다.

한북흥학회의 활동에 힘입어 신식 학교의 설립을 위한 움직임이 크게 일어나자, 함경도 지역 곳곳에 확산된 양사 기관은 점차 그 성격을 달리하기 시작하였다. 1908년 洪原에서는 두 양사 기관이 협력하여 민립학교를 세웠다. 南山齋와 晩成齋는 洪原의 강학 장소로 이름나 있었는데, 그 관련 유지들은 시국을 통찰하여 후진을 교육하기 위해 南成學校를 설립하고 음력 3월에 개교식을 열었다.[169] 이 학교는 남산재와 만성재의 이름을 각각 한 글자씩 빌려 학교의 이름으로 삼았는데 이를 통해 두 양사 기관의 합작을 통해 학교를 설립하였음을 드러내고 있다.

---

165) 會寧에서는 보통학교의 건축을 위해 파손된 南門의 목재를 활용하기도 하였다(『大韓每日申報』, 1907.10.19. “門材補校”).

166) 利原의 文昌學校는 그 마을에 있던 山仰齋에 설립하였는데, 주야로 배우러 온 學員이 백여 명에 이르렀다. 甲山의 普明學校에는 甲山이 아닌 明川의 인사가 250여 원의 가치가 있는 家舍를 借給하기도 하였다. 이외에도 함경도 내 많은 학교들은 校舍의 신규 건축이나 기존 건물의 수리 및 확장에 있어 민인의 협력을 통해 그를 달성하였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大韓每日申報』, 1909.12.18. “文昌果챵”; 『大韓每日申報』, 1909.12.19. “李氏義務” 참조.

167) 城津의 博文學校는 향교가 있던 자리로 이전하였는데, 박문학교가 있던 자리에 貞明女學校가 설립되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皇城新聞』, 1908.6.7. “城港女校” 참조.

168) 개인 家舍를 활용한 학교들이 모두 영세한 규모는 아니었다. 富寧의 東面 富洞에 거주하던 朴秉化는 자신의 家舍를 强立學校의 공간으로 내놓았는데, 학교의 晝夜 학생 수가 130여 명에 달하였다. 강립학교의 설립 이후 2주 정도 후에는 학생 수가 200여 인에 이르렀다. 『大韓每日申報』, 1909.2.11. “兩朴熱心”; 『大韓每日申報』, 1909.2.24. “富寧强立” 참조.

169) 『皇城新聞』, 1908.5.24. “兩齊合校”; 『大韓每日申報』, 1908.5.26. “兩齋合校”; 『大韓每日申報』, 1908.5.29. “兩齋合校”

이때 남성학교의 교사는 韓應敎였는데, 그는 가숙을 열 때에 신기선에게 가숙의 명칭과 서문을 지어줄 것을 부탁한 이력이 있는 유학자였다. 한응교와 韓民昊 등은 洪原郡 州南社 인근의 稽古堂을 사들여 가숙을 열고자 하였는데, 이때 한응교는 그의 아들인 韓準錫을 신기선에게 보내 이를 알리고 가숙의 명칭과 서문을 부탁하였다. 이에 신기선은 稽古堂을 '砥流齋'로 바꿀 것을 권하고 서문을 써서 주었다.[170] 이로 미루어보아 한응교 등 한씨 가문은 洪原 지역에서 한미한 집안은 아니었으며 유학을 공부하는 사족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洪原의 만성학교에서 한응교가 新舊學을 모두 가르쳤다는 기사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그는 유학만이 아니라 新學 역시 공부하였던 학자인 것으로 짐작된다.[171] 나아가 한응교 집안의 가숙인 지류재는 한학 및 유학과 더불어 신학문도 함께 연마하던 공간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한응교는 그곳에서 구학과 신학을 두루 익혔던 경험을 바탕으로, 남성학교에서 신구절충의 가치를 학생들로 하여금 계승하게 하였을 것이다.

吉州에서는 韓鎭稷, 許源 등 100여 인이 모여 1907년 搢紳契를 설립하였다. 이 양사계에 속한 인사들이 재원을 모아 吉成學校를 설립하였다.[172] 吉州는 평소 선비가 많은 곳이라 칭해지는 지역이었는데, 지역 인사들은 搢紳契를 설립하여 후진을 교육하는 데 있어서 正學을 밝히고 時務를 강론하는 방향으로 가고자 하였다. 또한 비슷한 맥락에서 大東學會의 지회를 설립하기도 하였다.[173] 양사재가 학교 설립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였다면, 양사계는 학교의 운영 재원을 공급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양사기관의 변환은 지역 민인이 새로운 교육 환경의 필요를 상호 교감하는 과정에서 이룬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 혹은 여러 곳의 양사 기관이 곧바로 새로운 학

---

170) 『陽園遺集』, 「砥流齋案序」.

171) 『大韓每日申報』, 1908.7.4. "請助反對"

172) 『大韓每日申報』 1907.7.28. ; 『大韓每日申報』, 1907.8.1. ; 『皇城新聞』, 1907.8.2. "吉校興旺".

173) 『陽園遺集』 卷8, 「吉州搢紳契序」.
"咸北之吉州 素稱多士 … 於是設搢紳契 創吉成學校 將以明正學講時務而敎育後進焉 于時大東學會 方興于京師 喜其志之同也 許爲支會 期其復爲國之元氣"

교로의 변환을 꾀하기도 하였으나, 기존 설립된 학교의 틀 안으로 양사 기관이 편입하여 들어가는 경우도 많았다.[174] 또한 학교의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北靑 龍湖面 中里에 있는 明誠學校가 폐교에 이를 정도로 재정이 악화되자 지역 민인들은 의연금과 함께 인근 22개 양사재의 재산을 모아 학교를 정상화하고자 노력하였다.[175]

종래 양사를 위한 많은 공간이 점차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학교로 변모하고 교육 내용 역시 신구절충의 방향으로 나아갔다. 이 변환의 과정은 많은 비용을 수반하는 일이었는데, 때문에 상인은 당대 교육 운동의 중요한 주체로 자리매김하였다.[176] 洪原郡守 鄭冕鎭이 주선하고 龍源社 내 14개의 양사 기관이 협력하여 攀龍學校가 설립되었다.[177] 학교의 장소는 14개 기관 중 하나인 思先齋의 40여 간이나 되는 廣廈로 정하였다.[178] 반룡학교의 설립 자금은 서재들이 갖고 있던 4천여 원과 더불어 각 유지들과 상회소의 의연금 등으로 충당하였다.[179] 洪原의 상인들은 학교의 설립과 운영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들은 군수 정면진과 더불어 상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商明夜學校를 설립하였고,[180] 자신의 상업 활동을 제쳐두고 학

---

174) 『大韓每日申報』, 1908.10.10. "景校請願"

175) 명성학교의 재원 마련에 참여한 양사재는 총 22곳이며, 그 목록은 다음과 같다. 隱求齋, 雲興齋, 松山齋, 湧泉齋, 三興齋, 松臺齋, 松峴齋, 隱顯齋, 觀瀾齋, 山陽齋, 養武齋, 希道齋, 松雲齋, 竹山齋, 龍淵齋, 松岳齋, 書都齋, 明新齋, 東山齋, 栗山齋, 新興齋, 雙龍齋(『大韓每日申報』, 1909.6.9. "本校刱立이 已過四個年에 經費不贍ᄒᆞ야").

176) 柳承烈, 「韓末 교육 운동의 推移와 客主」, 『역사교육』 81, 2002, 152~153쪽.

177) 대한매일신보에 게재된 14개 양사 기관의 이름은 思先齋, 進修齋, 湧泉齋, 中洞齋, 龍門齋, 登嬴齋, 박愼齋, 景仰齋, 書徒齋, 慕義齋, 追義齋, 白鷺齋, 壹會齋, 金海齋이다(『大韓每日申報』, 1908.6.3. "洪原郡龍源社에 思先齋進修齋湧泉齋中洞齋").

178) 『大韓每日申報』, 1908.6.3. "洪原郡龍源社에 思先齋進修齋湧泉齋中洞齋"

179) 1909년 洪原 공립학교의 확장 이전을 위한 의연금이 1,400여 원 정도였다고 하니 반룡학교의 설립과 관련한 지역 민인의 기대와 노력을 짐작할 수 있다(『大韓每日申報』, 1909.7.11. "洪校擴張" 참조).

180) 대한매일신보 1908년 5월 27일 기사에는 학교의 명칭이 商名夜學校로 되어 있는데, 1909년 7월 6일 기사에서는 商明學校로 쓰인 것으로 보아, '商明'이 옳은 명칭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두 시점 사이에 야학교에서 학교로 변환되었을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 『大韓每日申報』, 1908.5.27. "홍郡商校" ; 『大韓每日申報』, 1909.7.

교 업무에 매진하기도 하며 학교 운영에 적극 참여하였다.[181] 상인이 지역 교육 발전에 참여하는 일은 함경도의 다른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다.[182] 이러한 모습은 비단 함경도 유향층만이 아니라 각계각층의 민인 전반이 신식 학교의 주요 설립 및 운영 주체로 거듭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함경도에서 공공성을 가진 보편교육 기관은 점차 확산되었다. '義塾'은 지방관과 민인의 노력으로 설립되어 해당 지역의 중요한 漢學 및 新學 교육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점차 私塾의 규모를 넘어 인근 지역을 포괄하는 교육 기관으로서의 면모를 띠기 시작하였다.[183] 함경도에는 文川 文明義塾[184], 明川 丙午義塾,[185] 端川 昌明義塾[186] 등 지역 곳곳에 의숙의 명칭을 단 교육 기관이 있었는데, 그중 鏡城 有志義塾은[187] 함경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의숙 중 하나이자 차후 함경도 교육계를 대표하는 咸一學校로 발전한 교육 기관이었다.[188]

會寧 永綏社의 塔洞義塾 역시 지역 민인의 교육을 담당했던 학교였다. 이 탑동의숙에 1907년 다수의 민인이 의연금을 내었는데, 그 의연금의 내역에는 頌聖齋의 자본금도 포함되어 있다.[189] 주로 漢學 교육을 담당하고 있던

6., "商明果明" 참조.

181) 『大韓每日申報』, 1909.7.6. "商明果明"

182) 元山에서는 客主들이 나서 普文學校를 설립하였고 基督每日學校 등 여러 학교의 경비를 지원하였다. 柳承烈, 앞의 논문, 155~162쪽 참조.

183) 교육 내용도 漢學과 더불어 각종 신식 교육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鏡城의 有志義塾에서는 오전에는 漢文 諸課를 가르치고 오후에는 일어, 산술, 체조를 가르쳤다. 『皇城新聞』, 1905.10.14. "鏡城通信" 참조.

184) 『皇城新聞』, 1907.6.3. "志士刱校"

185) 『大韓每日申報』, 1907.10.22. "咸察辨明"

186) 『大韓每日申報』, 1908.9.16. "梁氏熱心"

187) 이와 관련한 연구로는, 김형목, 「함경북도 鏡城의 私立咸一學校維持契」, 『한국독립운동사연구』 55, 2016 참조.

188) 『皇城新聞』, 1907.1.26. "賀李雲協氏" ; 『皇城新聞』, 1907.3.12. "鏡城郡咸一學校" ; 『皇城新聞』, 1908.1.10. "咸北一 校" ; 『皇城新聞』, 1908.3.1. "咸校有望" ; 『大韓每日申報』, 1908.9.12. "咸壹校大擴張" ; 『大韓每日申報』, 1908.12.30. "咸北咸壹" ; 『皇城新聞』, 1909.1.12. "咸北鏡城郡士人車丙淳氏가咸一學校에測量科를設置하얏ᄂᆞᆫᄃᆡ第一回卒業榜如左" ; 『大韓每日申報』, 1909.1.27. "咸壹測量" ; 『皇城新聞』, 1910.4.30. "咸一卒業"

서재의 자본이 의숙으로 획부되었다는 점에서, 지역의 민인이 서재보다는 의숙의 교육 역량을 더 높게 책정하였다는 점을 짐작하게 한다. 이는 양사 기관의 운영 주체와 더불어 지역의 민인 다수가 이전의 교육 질서에서 벗어나 시류에 맞는 새로운 형태의 교육 환경을 재구성하려고 노력한 맥락에서 진행된 일이었다.

會寧의 민인들은 그 무렵 '四民敎育會'를 설립하였는데, 이 교육회의 설립을 위해 다양한 계층의 민인이 의연금을 내었다.[190] 사민교육회는 그 이름과 같이 '士農工商' 즉 전근대 신분질서 아래의 교육 논리에 종속된 형태가 아니라 모든 민인의 교육이라는 목적을 표방하였던 단체였다.[191] 會寧의 민인들은 이 단체를 통해 모인 자금을 바탕으로 새로운 건물을 건축하여 공립보통학교에 기부하기도 하는 등 공·사립 교육 기관을 가리지 않고 지역 내 제반 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192] 또한 1908년 會興女學校를 설립하는 등 여성도 포함한 보편교육을 지향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193]

그런데 이 회흥여학교에서는 한문과 국문 교육을 병행하고 있었다.[194] 會興學校에서는 한문과 더불어 산술, 체조 등을 교육하고 있었었다.[195] 또한 郡內에는 儒興學校가 설립되었다.[196] 이러한 점들을 통해 會寧에서는 여전히 한학과 유학이 중요한 교육 내용으로 자리하고 있는 동시에 점차 신학문 교육과 함께 보편교육의 면모가 지역 교육 기관 내에 정착하는 양상을 확인

189) 『皇城新聞』, 1907.6.7. "會寧郡永綏社塔洞義塾에 義捐諸氏가"; 『皇城新聞』, 1907.8.13. "會寧郡永綏社塔洞義塾에 義捐諸氏을 廣告홈"
190) 『皇城新聞』, 1907.9.19. "會寧四民敎育會員國債報償募集金額"; 『皇城新聞』, 1907.9.20. "會寧四民敎育會員國債報償募集金額"
191) 『皇城新聞』, 1909.3.4. "請願繳還"
192) 『皇城新聞』, 1908.11.4. "御眞館新建"
193) 『大韓每日申報』, 1908.8.4. "會寧校況"; 『大韓每日申報』, 1908.9.13. "女校振興"; 『大韓每日申報』, 1909.4.17. "金氏義務"
194) 『大韓每日申報』, 1908.8.4. "會寧校況"
195) 『皇城新聞』, 1906.8.9. "咸北興學"; 『皇城新聞』, 1906.8.9. "會興學校義捐金額과 人名은 左와"; 『大韓每日申報』, 1907.2.21. "敎師廉勤"
196) 『皇城新聞』, 1906.10.5. "會寧郡守朴魯學氏가 莅任ᄒᆞ야 郡內에"; 『皇城新聞』, 1906.10.8. "會寧郡守朴魯學氏가 莅任ᄒᆞ야 郡內에"

할 수 있다.

한북흥학회의 설립 이후 신구절충에 입각한 보편교육론의 확산은, 함경도의 양사 기관이 신식 학교로 변환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 과정에서 학교 설립·운영과 교육 활동의 주체는 특정 소수층에서 일반 민인 전체로 확대되었다. 신식 학교는 보편교육 기관을 지향하고 있었으며, 그 교육 내용으로는 여전히 舊學이 중요한 위상을 갖는 가운데 新學이 신구절충의 관점에서 포함되었다. 이러한 함경도에서의 각종 변화상은, 당시의 급변하는 세태에서 함경도 민인 일반이 상호 연대하여 국난 국면을 돌파하는 가운데 민인 의식이 크게 성장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4. 結語

함경도 지역 文士層은 중앙의 崇武抑文 정책과 맞물려 인재 등용에 있어 차별을 받아왔다. 科擧의 급제 등을 통한 중앙 진출이 쉽지 않은 와중에 그들은 각자의 지역에서 학업을 이어나가는 한편으로 생업을 위해 농업이나 상업 등에 종사하였다. 유력한 가문의 자제라 하더라도 과거 공부에만 매진하는 것은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큰 부담이 있는 일이었다. 지역 사회에서 과거의 급제 이외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은 校任 등의 향촌 직임을 맡는 일이었다.

함경도에서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儒鄕 分岐가 일어났다. '儒'는 향교 및 서원에 기반을 둔 유림이었고 '鄕'은 향청 등에 기반을 둔 향족을 일컫는 말이었다. 그런데 함경도에서는 '유'보다 '향'의 세력이 더 강했던 것으로 보인다. 世宗朝에 실시한 土官制는 관북의 유력자를 회유하기 위함이었는데, 토관은 점차 향리로 轉化하였다. 이들은 향리의 직분이었으나 향촌 사회에서 큰 영향력을 갖고 있었다. 따라서 다른 지역과는 달리 함경도에서 '향'은 舊鄕, '유'는 新鄕의 위치에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 '향'과 '유'는 각각 東儒와 西儒, '鄕儒'와 '世儒'·'新儒'로 지칭되기도 하였다. '향유'는 鄕廳과 作廳에서의 향임을 주로 맡고 있던 세력이었다. 이들은 무임도 병행하였던 것으로 보아 함경도 향촌 사회에서 큰 영향력을 갖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에 비해 '세유' 혹은 '신유'는 다른 지역으로부터 移來하여 정착하여 향유에 비해 세력 기반이 약하였다.

향임과 교임 등의 직임은 함경도 지역의 모든 민인이 선망하는 대상이었고, 이를 획득하기 위한 여러 형태의 분쟁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함경도 지역에서는 향임을 주로 맡았던 향유를 세유와 더불어 교임에도 차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19세기에 이르러 향유층이 교임을 나누어 맡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모두 차지하려고 하였다. 이에 세유층은 반발하여 상소하였고 교임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었다. 하지만 큰 세력을 갖고 있던 향유층의 교임 침탈을 세유층이 막기는 어려웠다. 세유층은 爲己之

學을 위한 공간의 확보와 더불어 향촌 사회에서의 영향력을 키우기 위하여 양사 기관을 설립하였다. 이에 함경도에서 양사 기관이 점차 확산되고 향약·향례가 널리 시행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갑오개혁으로 신분제와 과거제가 철폐되면서 함경도 향촌 사회에 새로운 사회 변동 세력이 등장하여 세유와 향유의 기득권이 위협받게 되었다. 특히 新制에 포함된 '勿拘士民'의 문구는 함경도 사회에서 화두로 떠오르며 기존 향촌 질서를 더욱 흔들었다. 이는 인재의 등용과 직임의 차출 등에 널리 인용되며 기존의 질서를 재편하게 하는 動因이 되었다. 開化契와 開化堂 등 이전의 양사 기관과는 다소 성격이 다른 조직체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儒鄕層은 연대하여 중앙에 상소하고 舊例의 회복을 청하였다. 1902년 李容翊을 필두로 한 148명의 대인원이 결집하여 상소를 올린 결과 중앙으로부터 '鄕憲'이 내려졌다. 함경도 유향층은 이를 기념하여 咸鏡道京約所에서 鄕飮酒禮를 베풀었다. 그 자리에는 상소문에 성명을 올린 인사를 포함한 함경도의 유력 인사가 대거 참석하였다.

그러던 가운데 韓日議定書 체결 등 국난에 봉착하면서, 함경도의 유향층을 포함한 주요 인사들은 향음주례를 베풀었던 함경도경약소에서 漢北興學會를 설립하고 교사를 양성하는 등 교육의 진흥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한북흥학회는 함경도에서 新舊折衷을 표방하며 활동을 전개하였다. 君子와 野人의 대비를 통해 舊學과 新學을 양쪽 날개 삼아 단단히 익혀야 한다는 오상규의 당부의 말은 함경도의 신구절충 교육론을 대변한다. 이러한 인식이 보편교육론으로 확장됨에 따라 교육 활동의 주체가 점차 民人 전체로 확대되었고 공공성을 띤 新式 學校의 확산은 가속화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양사 기관으로 대표되는 함경도의 전통적인 교육 기반 위에서, 함경도 민인 일반이 國亡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학문을 적극 수용하려 한 결과였다.

함경도의 유향층은 갑오개혁 이후 과거제와 신분제가 폐지되는 등의 거센 도전을 맞이하였다. 그들은 외집단 세력을 자체적으로 압도할 역량이 부족했고, 당시의 급변하는 시대적 분위기와 추세를 마냥 거부할 수도 없었다.

이에 유향층은 상호 결속을 토대로 중앙에 상소를 올려 민인 다수가 납득할 만한 적법한 형태의 결과를 이끌어냈다. 이 과정은 함경도 일반 민인의 반발을 크게 야기하지 않으며 안정된 지역 분위기를 조성하였고, 이는 이후 시기 민인 교육열의 지속과 함께 3·1운동의 격렬한 진행을 불러온 근거가 되었을 것이다. 여기서는 함경도 민인이 어떠한 맥락에서 신구절충에 입각한 교육 방침을 큰 저항 없이 수용할 수 있었는가에 관해서 면밀히 살피지는 못하였는데, 이는 추후의 연구 과제로 남겨두기로 하겠다.

參 考 文 獻

1. 자료

1) 연대기・법전류

『朝鮮王朝實錄』,『承政院日記』,『備邊司謄錄』,『日省錄』

『官報』,『起案』

『經國大典』,『大典通編』,『大典會通』

2) 신문・잡지・읍지류

『漢城旬報』,『漢城週報』,『獨立新聞』,『每日新聞』,『皇城新聞』,

『帝國新聞』,『大韓每日申報』,『每日申報』

『協成會會報』,『西友』,『西北學會月報』,『大東學會月報』,『開闢』,『三千里』

『輿地圖書』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지리지종합정보(e-kyujanggak.snu.ac.kr)

3) 일기・문집류

『槐庭雜誌』,『梅泉野錄』,『勉菴集』,『眉山集』,『北幕日記』,

『北行隨錄』,『松窩雜說』,『陽園遺集』,『龍湖閒錄』,『韋庵文稿』,

『韓溪遺稿』,『瓛齋集』

김구 著, 도진순 注解,『백범일지』, 돌베개, 2005.

4) 기타 사료

『鄕憲』,『關北鄕飮酒禮』

笹森儀助,「咸鏡道の現況」,『地學雜誌』12, 1900.

岩井敬太郎,『顧問警察小誌』, 韓國內部警務局, 1910.

2. 연구 논저

1) 연구서

강석화,『조선후기 함경도와 북방영토의식』, 경세원, 2000.

고석규,『19세기 조선의 향촌사회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1998.

고승희,『조선후기 함경도 상업 연구』, 국학자료원, 2003.

김용덕,『鄕廳硏究』, 韓國硏究院, 1978.

김인걸,『조선후기 공론정치의 새로운 전개』,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7.

김인걸,『조선후기 향촌사회 지배구조의 변동』, 경인문화사, 2017.

김태웅,『한국근대 지방재정 연구』, 아카넷, 2012.

김태웅,『신식 소학교의 탄생과 학생의 삶』, 서해문집, 2017.

김태웅,『어윤중과 그의 시대』, 아카넷, 2018.

柳永烈,『大韓帝國期의 民族運動』, 一潮閣, 1997.

손정목,『조선시대 都市社會硏究』, 일지사, 1977.

송찬섭,『서당, 전통과 근대의 갈림길에서』, 서해문집, 2018.

梁泰鎭,『韓國邊境史硏究』, 法經出版社, 1989.

吳煥一,『역사와 향촌사회 연구』, 경인문화사, 2000.

尹熙勉,『朝鮮後期 鄕校硏究』, 一潮閣, 1990.

전경욱,『함경도의 민속』, 고려대학교출판부, 1999.

2) 연구논문

姜大敏,「朝鮮朝 咸鏡道地方의 養士廳에 관한 考察」,『釜大史學』 17, 1993.

강대민,「北道地方의 養士機構에 관한 小考」,『정신문화연구』17(4), 1994

姜錫和,「英・正祖代의 咸鏡道 地域開發과 位相强化」,『奎章閣』18, 1995.

高丞嬉,「18, 19세기 咸鏡道 地域의 流通路 발달과 상업활동」,『歷史學報』151, 1996.

高丞嬉,「18, 19세기 咸鏡道 地域商人層의 성장」,『綠友硏究論集』 37,

2000.
具姬眞,「韓國 近代改革期의 敎育論과 敎育改編」,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金炅春,「朝鮮朝 後期의 國境線에 대한 一考」,『白山學報』29, 1984.
김백철,「조선시대 咸鏡道 지역사 試論」,『규장각』51, 2017.
金有成,「開化期 開化派의 歷史認識과 近代學校에서의 歷史敎育」,『청람사학』3, 2000.
김인걸,「조선후기 향촌사회 권력구조의 변동과 '民'」,『한국문화』9, 1988.
김태근,「개항 후 지방 교육 체제의 변화 연구」,『東洋學』74, 2019.
김형목,「함경북도 鏡城의 私立咸一學校維持契」,『한국독립운동사연구』55, 2016.
김형목,「함경북도 경성의 사립보성학교 관련자료」,『한국독립운동사연구』57, 2017.
金慧子,「朝鮮後期 北邊越境問題 硏究」,『莉大史苑』18・19, 1982.
金孝貞,「韓末 民立 師範學校의 設立과 敎育救國運動」,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劉鳳榮,「白頭山定界碑와 間島問題」,『白山學報』13, 1972.
류승렬,「韓末 私立學校 變遷의 경위와 그 역사적 의미」,『강원사학』13・14, 1998.
柳承烈,「韓末 교육 운동의 推移와 客主」,『역사교육』81, 2002.
문상명,「『1872년 지방지도』에 나타나는 조선 후기 지역 사회의 특수성」,『열상고전연구』50, 2016.
박경하,「19世紀 咸鏡道 安邊의 鄕廳・作廳 職任과 人事慣行」,『역사민속학』44, 2011.
朴炳勳,「개항기・한말 銅鑛業의 生産과 經營 -甲山銅鑛을 중심으로-」,『복현사림』11, 1988.
朴容玉,「白頭山 定界碑建立의 再檢討와 間島領有權」,『白山學報』30・31, 1985.

朴翼煥,「咸興鄉憲・鄉規考」,『한국사연구』53, 1986.
박정민, 「함경도 『觀察使先生案』의 명단 검토와 재임 실태」, 『전북사학』 52, 2018.
裵基憲,「朝鮮後期 作廳의 運營과 그 性格」,『계명사학』6, 1995.
徐珍敎,「1898年 都約所의 結成과 活動」,『진단학보』73, 1992.
愼鏞廈, 「우리나라 最初의 近代學校 設立에 대하여」, 『韓國史硏究』 10, 1974.
오기수,「조선시대 각 도별 인구 및 전답과 조세부담액 분석」,『세무학연구』27, 2010.
우경섭,「한말 두만강 지역의 유학자들 -金魯奎와 金鼎奎를 중심으로-」,『한국학연구』32, 2014.
李景植,「우리나라 興學과 氣槪涵育의 推移」,『서울대학교 사대논총』67, 2003.
李道學,「嶺南京約所節目冊」,『전통문화논총』2, 2004.
이성심,「조선후기 도 단위 학교, 營學 연구」,『한국교육사학』39, 2017.
李松姬, 「韓末 漢北興學會의 組織과 活動에 關한 考察」, 『梨花史學硏究』 15, 1984.
李漢基,「韓國의 領土」,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69.
장유승,「朝鮮後期 西北地域 文人 硏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鄭吉子,「間島의 歸屬問題」,『綠友硏究論集』5, 1963.
丁淳佑,「朝鮮後期 養士齋의 性格과 敎育活動」,『精神文化硏究』17, 1994.
鄭崇敎,「대한제국기 지방학교의 설립주체와 재정」,『한국문화』22, 1998,
정숭교,「韓末 民權論의 전개와 國粹論의 대두」,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鄭在傑,「원산학사에 대한 이해와 오해」,『중등우리교육』1, 1990.
鄭在傑, 「韓國 近代敎育의 起點에 관한 硏究」, 『敎育史學硏究』 2・3, 1990.
정해득,「朝鮮後期 關北 儒林의 形成과 動向」,『경기사학』2, 1998.

趙　珖,「朝鮮後期의 邊境意識」,『白山學報』16, 1974.
趙顯旭,「漢北興學會의 조직과 활동」,『한국독립운동사연구』18, 2002.
차장섭,「조선후기 문과급제자의 성분」,『대구사학』47, 1994.
崔起榮,「한말 李儁의 정치・계몽활동과 민족운동」,『한국독립운동사연구』29, 2007.
하명준,「조선후기~근대개혁기 평안도의 정치・문물 신장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홍해뜸,「조선후기 수령의 향촌통치와 관민소통책」,『한국사상사학』49, 2015.

〈附錄 1〉『鄉憲』 上疏 名單과『關北鄉飮酒禮』·漢北興學會 參員 比較

光武6年(1902) 6月 上疏 叅員		『關北鄉飮酒禮』叅員	漢北興學會 叅員	기타
직책	성명			
正二品 內藏院卿	李容翊	內藏院卿		명천
正三品 前侍讀	朱明相			
平理院檢事	吳相奎	度支出納局長	회장	회령
前郡守	張箕洽	前郡守		영흥
郡守	許逅	前郡守		길주
前郡守	南九熙	前郡守		덕원
前正言	崔秉鎭			
前注書	全在悳			
前奉事	朱堂			
前郡守	趙夏植			
前奉事	康軾魯			
郡守	李鍾斗			
前令	朴來遠	前令		문천
正三品	李垢燮			
正三品	林有麟			
前叅奉	吳進鉉			
前議官	全道鎭			
捧稅官	李泰河	封稅官	평의원	북청
進士	吳敏燮			
前叅奉	李麟在	濬源殿令	회원	북청
前議官	鄭範夏			
前判官	金光鉉			
前郡守	金河聲			
前令	李容弼	前令		함흥
前叅書官	金仁泳			
前主事	韓稷淵	前主事	회원 韓穆淵?	함흥
前叅奉	朴永淳			
郡守	趙觀允	松禾郡守	회원	장진
前叅奉	姜永璣			
前捧稅官	全學洙			
前主事	呂亨燮	前主事		길주
前侍御	韓相武	前侍御		함흥
前叅奉	李儁	前檢事	평의원, 회장	북청
前僉使	韓鎭稷			
正三品	張鳳周	正三品	평의원	영흥
前主事	韓復維			
主事	韓秉璉	鐵道院主事	회원	정평
前主事	趙性璉			
前叅書官	崔達斌		평의원, 회원	
前主事	金永運			
進士	李逌冕			
前令	姜玧熙		평의원	
前令	許源	前令	회원, 평의원	길주
前侍從	崔璟亨	內藏院課長 崔景亨?	평의원, 회원	함흥
陸軍叅領	朴有泰	陸軍叅領		안변

正三品	沈希澤	前僉使		단천
前議官	劉秉林	前議官		북청
前主事	朱頤鍾	前主事		함흥
前主事	李周璡	前主事 李柱璡?		북청
前主事	李錫瀅			
前議官	朴景萬	前議官	회원	북청
前叅奉	金庚煥			
陸軍叅領	金仁洙			
進士	李秉善			
前敎官	文錫烈	前敎官		
前主事	尹瑚	前議官		영흥
前察訪	鄭晃鎭	前察訪		함흥
前主事	尹鎬烈		간사원	
前主事	李榮錫			
前主事	劉泰悅	前主事		북청
前主事	姜載坤			
前僉使	徐應玉			
前主事	兪聖濬			
前主事	韓相寅	前主事		함흥
前議官	李鍾暉			
前叅奉	劉學烈			
前司果	嚴時永	前司果	회원	이원
前議官	金斗星	前議官		단천
前郡守	金琬	前郡守		북청
前主事	孫錫洛			
前叅奉	劉河龍		회원	
正三品	趙七弘			
主事	趙珍鎬			
前主事	崔南隆			
前主事	李現奎	前主事		북청
前議官	李鍾麟	前議官		북청
前主事	姜鎭磻			
前侍御	元鼎喜	前侍御		정평
前令	金昌洙			
前侍御	朱亮善			
前主事	李悳在			
陸軍正尉	朴有豐	陸軍正尉	회원	안변
前叅奉	車慶德			
前主事	金秉權	前主事		?
前叅奉	金光植	前令		북청
前主事	金允協			
前主事	李國煥			
前祕書院郎	李龍鎰			
進士	韓弘琫			
前議官	金仁淑	前議官		정평
前委員	魏龍源	前委員		함흥
前郡守	李奎軫	前郡守 李奎珍?		정평
前議官	朱鍾翼		회원	
前主事	金性璘			
前議官	李斗鳳			

前敎員	朱在軒			
前主事	沈夏澤	前主事		정평
前僉使	黃龍信			
前議官	韓明謨			
正三品	韓禹錫			
前侍從	韓錫泳			
前議官	朴震淳			
進士	李統賢			
正三品	李昌秀			
進士	金秉振			
前委員	趙健承			
前主事	徐廷淑		회원	
前主事	全鍾鎬			
前主事	姜弼求	前主事		?
前叅奉	黃斗永			
幼學	姜處淳			
幼學	金魯奎			
幼學	朱樂欽			
幼學	朱鍾元			
幼學	魏楨昱	幼學		함흥
幼學	韓憲敎			
幼學	李鎬			
幼學	金樂善			
幼學	趙鍾鳳			
幼學	金聲弼			
幼學	姜鎭勛			
幼學	李弘根			
幼學	金鉉相			
幼學	金明洙			
幼學	金仁洙			
幼學	朴永愚			
幼學	柳秉龍	契委員	회원	함흥
幼學	金斗燮			
幼學	全性樛			
幼學	李在殷	幼學		북청
幼學	朴性學			
幼學	金知淵			
幼學	朴精洵			
幼學	韓鳳錫		회원	
幼學	崔南衡	幼學 崔南烱?		안변
幼學	崔容鍵			
幼學	朴羲哲			
幼學	李培馨			
幼學	朴亨順			
幼學	金河駿			
幼學	李廷在			
幼學	孫昇龍			
幼學	李昇泰	幼學		북청
幼學	金兌復			
幼學	李炳壽			

幼學	朱秉涉			
幼學	鄭貫一			
幼學	朱永欽	幼學		함흥
幼學	辛承麟			

출전:『鄕憲』(규장각한국학연구원 奎 910)

〈附錄 2〉『關北鄉飲酒禮』參席 名單

光武7年(1903) 7月 鄉飲酒禮 叅員			
역할	직책	성명	출신지역
主人	內藏院卿	李容翊	明川
賓	前判書	閔致憲	京
僎	前判書	李裕承	京
	前判書	李乾夏	京
	議政府贊政	成岐運	京
	議政府叅贊	李容泰	京
	前叅判	李容善	京
	前丞旨	李起鎰	京
	前丞旨	李鎬爽	京
价	前郡守	南九熙	德源
一賓	前郡守	張箕洽	永興
二賓	前郡守	許逅	吉州
三賓	叅書官	李寅淳	北靑
衆賓	正三品	趙時雨	北靑
	泰川郡守	趙鼎允	長津
	陸軍軍醫	姜義臣	利原
	前郡守	金佐鳳	甲山
	前令	朴來遠	文川
	前令	李容弼	咸興
	度支出納局長	吳相奎	會寧
	平理院檢事	太明軾	明川
	前侍從	蔡賢植	慶源
	前郡守	洪淳七	京
	前郡守	金河璿	明川
	前郡守	朴逸憲	明川
	前議官	劉秉林	北靑
	前主事	韓稷淵	咸興
	前郡守	全威燮	文川
	前郡守	金裕秀	高原
	前郡守	金琬	北靑
	前主事	朱學炳	北靑
	前主事	嚴柱鶴	明川
	通信院課長	李圭贊	京
	掌禮院課長	李哲宇	京
	正三品	朴載夏	京
	鐵道院主事	韓秉璉	定平
	前主事	任雨鎬	咸興
	前萬戶	李宗璿	三水
	封稅官	李泰河	北靑
	議政府主事	玄昇奎	吉州
	前叅奉	金重彬	北靑
贊禮	前議官	金仁淑	定平
	前檢事	李儁	北靑
主 贊引	前侍御	韓相武	咸興
	前議官	李楨鳳	北靑

	前議官	崔恒鏞	洪原
賓 贊引	前令	朱堣	咸興
	幼學	魏楨昱	咸興
	地契委員	柳秉龍	咸興
僎 贊引	前教官	文錫烈	咸興
	前主事	韓游教	咸興
	前主事	李在琬	北靑
介 贊引	前主事	李英寅	利原
	前主事	朱炳濤	北靑
	幼學	朱永欽	咸興
一賓 贊引	前叅奉	金必夏	德源
	前教員	趙基興	北靑
	前主事	李現奎	北靑
二賓 贊引	主事	張文烱	永興
	前令	朴景準	德源
	前委員	劉鐸源	北靑
三賓 贊引	前主事	朴鳳熙	北靑
	前主事	沈義澤	端川
	幼學	韓震用	定平
衆賓 贊引	前議官	李鍾麟	北靑
	前叅奉	李達鉉	永興
	幼學	李容政	咸興
	幼學	金百鉉	安邊
	幼學	趙東允	永興
司正	前主事	朱楨燮	咸興
司尊	前直長	鄭載憲	永興
	濬源殿 令	李麟在	北靑
	前主事	金秀昊	利原
	幼學	董喆模	明川
	幼學	金希俊	端川
樂正	禮式委員	朴軫述	咸興
	前主事	金泓庠	北靑
瑟	陸軍正尉	朴有豐	安邊
笙	前主事	李柱璡	北靑
磬	幼學	韓在命	?
鼓	幼學	李在殷	北靑
主 奉酌	前主事	李進性	北靑
	前委員	魏龍源	咸興
主 奠酌	平理院主事	朴有觀	安邊
	幼學	張宓炫	永興
主 奉酌	前令	金龍壽	吉州
	前叅奉	金敎聲	永興
賓 奠酌	前主事	池蘭賢	北靑
	幼學	金孝元	北靑
僎 奉酌	前直長	李根弼	永興
	幼學	申龍雨	?
僎 奠酌	前主事	沈夏澤	定平
	幼學	趙性燦	北靑
介 奉酌	工業課主事	韓昌範	北靑
	幼學	李昇泰	北靑

介 奠酌	前叅奉	李鍾元	北靑
	前主事	金周鎬	北靑
盥洗位	正三品	張鳳周	永興
	幼學	姜觀榮	洪原
酌洗位	前委員	金奎燦	甲山
	委員	沈翊澤	?
	幼學	李在駿	北靑
執律	前主事	全泓國	北靑
	前侍從	朱奎運	咸興
	前主事	朴熙豊	咸興
歌詩	前主事	朱頤鍾	咸興
	前教員	金基純	北靑
	前叅奉	李錫徽	德源
	前主事	申泰善	咸興
觀聽	陸軍叅領	朴有泰	安邊
	松禾郡守	趙觀允	長津
	前郡守	李奎珍	定平
	前令	金秉熙	咸興
	陸軍副尉	金承杓	北靑
	前令	金光植	北靑
	正三品	金處洪	永興
	前監察	李敎俊	城津
	內藏院課長	趙台基	咸興
	前議官	孔錫祚	定平
	前議官	尹瑚	永興
	正三品	金錫柱	文川
	前奉事	李台烱	德源
	內藏院課長	崔景亨	咸興
	前郡守	金秉周	明川
	前委員	韓亨魯	長津
	前主事	劉泰悅	北靑
	前教員	李澤說	咸興
	捧稅官	池成海	咸興
	前議官	朴景萬	北靑
	前僉使	沈希澤	端川
	前僉使	韓光國	咸興
	前教員	金時權	咸興
	前主事	趙琬柱	北靑
	前教員	姜尙熙	北靑
	前監察	魚時協	北靑
	前主事	韓相寅	咸興
	幼學	崔南烱	安邊
	幼學	董麟漢	明川
	幼學	張道淵	北靑
	前察訪	鄭冕鎭	咸興
	前叅奉	李斗震	咸興
	前令	許源	吉州
	前委員	李源	北靑
	前主事	金鎭極	北靑
	幼學	韓鳳洙	北靑

	幼學	許棊	端川
	幼學	李性烈	北青
	前主事	呂亨燮	吉州
	前主事	金秉烈	永興
	幼學	李晉鍾	咸興
	前叅奉	李孝伯	北青
	幼學	李泰淵	咸興
	前主事	金應鎭	北青
	前司果	嚴時永	利原
	幼學	辛濟善	利原
	前侍從	金裕稷	北青
	幼學	金麗濬	永興
	前主事	李允奎	北青
	幼學	沈永澤	端川
	幼學	李華龍	安邊
	幼學	長樂臣	?
	幼學	趙璟淳	永興
	幼學	李秉翼	咸興
	幼學	張履燮	永興
	前議官	姜錫夏	北青
	前主事	朱泰律	北青
	前主事	金寅淳	安邊
	前叅奉	廉聖澈	?
	前叅書	姜世允	咸興
	前議官	金斗星	端川
	前議官	吳南九	定平
	前監役	成載明	咸興
	前都事	金重錫	端川
	前主事	李允奎	北青
	前監役	金斗河	咸興
	幼學	李鍾夏	吉州
	幼學	李俊黙	咸興
	前主事	金秉權	?
	前委員	韓良錫	北青
諸執事	前叅書	李明性	北青
	前令	朴春郁	咸興
	前侍御	元鼎喜	定平
	前主事	張宗垕	永興
	幼學	李星烈	咸興
	幼學	全在龍	咸興
	幼學	宋冕麒	咸興
	幼學	金源周	咸興
	幼學	宋在乾	永興
	前侍御	韓昱	高原
	幼學	金弘燁	永興
	幼學	兪東濬	咸興
	前侍御	金秉周	德源
	前主事	金庚淑	永興
	前主事	姜弼求	?
	幼學	姜弘秀	?

	幼學	朱時謙	永興
	幼學	吳駿憲	咸興
	幼學	趙鍾三	永興
	幼學	吳在明	永興

출전: 『關北鄕飮酒禮』(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K1-110)

비고: 회색 칸은 같은 인물(李允奎)이 중복 기재된 것으로 보임.

Abstract

Conflicts between Confucian Scholars and Local Functionaries and the Conversion of Educational Institutions in Hamkyung-do during the Modern Reform Period

Choi, Yoon
History Education Major,
Department of Social Studies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examined how the traditional educational institutions were converted to modern schools in Hamkyung-do during the Korean Empire as the social orders shifted in local communities in Hamkyung-do at the end of the Joseon dynasty.

Policy directions towards Hamkyung-do during the Joseon dynasty focused on the military aspects rather than the scholarly aspects as the region was situated in the border area. The aristocratic class in Hamkyung-do wielded relatively weaker economic powers, and it was, therefore, difficult for them to focus on studying Confucianism in preparation for the national examination. Instead, the Confucian scholars made an effort to hold official posts in the local communities. By the

end of the Joseon dynasty, most of the posts in the local communities were occupied by the local functionary class, whereas the Confucian scholars who were pushed out of such positions aimed to gain more influence within the local communities by establishing educational institutions to foster scholars and implement *hyangyak* (local community pacts, 鄉約) and *hyangnye* (local rituals, 鄉禮).

As the status system and the national examination were abolished after the Kabo Reform, new groups calling for social change appeared in the local communities in Hamkyung-do, threatening the social order established by the Confucian scholars and the local functionaries. The Confucian scholars united and appealed to the central government, asking for the restoration of the old traditions. Later, they held a local wine-drinking ritual (*hyangeumjurye,* 鄉飲酒禮) to commemorate the central government's response of sending the "*hyangheon"* (a book that recorded the local pacts, 鄉憲) to the region. After the country faced national crisis after the signing of the Japan-Korea Treaty of 1904, influential figures in Hamkyung-do, including the Confucian scholars, established the *Hanbukheunghakhoe* (North Han River Association for the Promotion of Learning, 漢北興學會) at the Hamkyung-do *Gyeongyakso* (京約所), where they had hosted the *hyangeumjurye,* and trained more teachers to overcome the impending crisis by promoting education.

The motto of the *Hanbukheunghakhoe* was to find harmony between the new and the old.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Hanbukheunghakhoe,* many educational institutions in Hamkyung-do were converted into institutions that were based on both the traditional and modern school systems. The agents of educational activities were soon expanded to the

public, and the spread of modern schools with public missions accelerated. This transition was possible through the joint effort of the people in Hamkyung-do, who openly accepted modern studies on top of their traditional educational foundations, most noticeably the Confucian institutions, to overcome the fall of their country.

Keywords: Confucian scholars, local functionaries, educational institutions, *Hanbukheunghakhoe,* harmony between the old and new, modern schools

***Student Number* : 2017-27922**